장편실화

인생결차

인 훈

금성청년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제 4 장. 동방의 밝은 빛을 따라 ····················(206)

1. 운명의 분수령····································(207)
2. 태양은 빛난다····································(223)
3. 환희, 가장 기쁜 날 ······························(236)
4. 보답의 길··(257)
5. 심장의 웨침······································(261)
6. 못잊을 총련을 다시 찾아·······················(274)
7. 꽃목걸이사건 이후······························(279)
8. 인간향기 ··(299)

제 4 장
동방의 밝은 빛을 따라

나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비슈와나스가 조심스럽게 뒤걸음으로 물러서기때문이였다.

그의 눈길은 방에 들어서던 때와 다름없이 나갈 때도 줄곧 위대한 수령님의 랍상으로 향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린 그는 한참이나 그이의 영상을 우러러 숭엄한 자세로 서있다가 그렇게 뒤걸음으로 방을 나서는것이였다.

나도 그를 따라 그처럼 뒤걸음으로 조심조심 수령님의 랍상이 모셔져있는 그 방을 나섰다.

자책되였다. 외국인인 그앞에 나의 가슴은 깊은 자책의 감정으로 축축히 젖어드는것이였다. 나는 이미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으나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었다.

그날 비슈와나스는 나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앞에서는 뒤로 돌아설수 없소. 최대로 성실해야 하오.

김일성주석각하는 〈하느님〉의 사도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 그 〈하느님〉이시요.

하늘우에는 다른 사람이 없소.

〈하느님〉만이 인류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다 내다보고계시오.

조선에는 성경책이 필요없소. 인민의 〈하느님〉이 계시기때문에.

주석각하는 고등교육도 받지 않으셨는데 천하 모르시는것이 없으시오.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늘이시기때문이요.

〈하느님〉은 누가 배워줘서 아는것이 아니요. 천기를 타신분은 모든것을 다 안고 태여나는것이요. …》

향산호텔에서 그와 함께 한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눈 그날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던 2002년 4월 12일이였다.

1. 운명의 분수령

한생을 돌이켜볼 때 누구에게나 운명의 분수령이 있을것이다. 갈래많은 물줄기들이 그 분수령에서 제 길에 들어서듯이 인간도 그런 령을 넘어 자기의 운명길에 들어서게 되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지금 그 운명의 분수령으로 가고있었다. 도꾜를 떠나 하바롭스크를 거쳐 그는 평양으로 가고있었다.

12월의 날씨는 몹시 추웠다.

비행기에 외국인이란 그 한사람밖에 없었다. 날씨도 추웠거니와 성탄절을 앞둔 때여서 더 손님이 없는듯도 했다. 이러한 때에 그는 움직이고있었다. 그는 오직 리념을 따라가고있었다.

비행기승무원처녀들은 외국손님이 그밖에 없기때문에 크게 할 일이 없었다. 안내원처녀가 때때로 와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묻기도 하고 이제 얼마후면 평양에 도착한다고 친절히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저희들끼리 꼬니를 두며 놀고있는듯 했다.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서는 자유투사들의 피가 스민 땅에 처음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동의 파도가 일고있었다.

이때 비행기승무원들이 부르는 애국가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산뜻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는듯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호기심이 동하여 그들에게 다가가 두 단어로 된 간

단한 질문을 하였다.

《근심걱정이 없습니까?》

한 처녀가 즐거워보이는 인상을 지으면서 자기들은 모든 운명을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다 맡기고있다고 영어로 재치있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또 물었다.

《**김일성**원수님을 아는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슈와나스는 놀랐다. 비행기에서 그분의 따님을 만나다니?!

그는 처녀의 옆으로 한걸음 바싹 붙어서며 물었다.

《그래 **김일성**원수님은 자제분이 몇인가?》

《4천만입니다.》

처녀는 거침없이 말하였다.

비슈와나스는 한순간 얼떠름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처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였다.

《미쳤니?》

비슈와나스는 정말 이 처녀가 정신이 잘못되였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되였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좀 언짢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왜 그런 롱담을 하는가?》

처녀는 롱담이 아니라는듯 밝은 인상을 그대로 지으면서 다른 처녀에게 네가 말해주라고 하는것이였다. 그 처녀 역시 같은 대답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기분이 좀 좋지 않았다. 정녕 그럴수 없는 일을 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더 묻지 않았다. 좌우간 가서 보면 모든것을 자상히 알것이였다.

비행기는 평양비행장에 서서히 착륙하였다. 《거짓말》하는 처녀들이 살틀하게 다가와 웃으며 그를 안내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말도 하지 않았다.

12월의 비행장은 비교적 조용하였다. 기다렸다는듯이 두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비슈와나스에게 다가왔다.

아니 이게 누구인가?!

그는 제꺽 장경일을 알아보았다. 장경일은 그사이 임기를 마치고 조국에 소환되였던것이다. 반가왔다.

그가 내가 오는것을 알고 마중나올줄이야.

장경일은 같이 나온 젊은 사람을 소개하였다. 그의 이름은 한찬두라고 하였다. 그는 영어를 아주 잘하였다

기뻤다. 서로 반갑게 얼싸안고 상봉을 하는 그들을 보고 승무원처녀들이 마음이 놓인다는듯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춤을 추듯 팔을 저으며 떠나갔다.

비슈와나스는 첫 순간에 벌써 조선은 단결된 나라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는것이였다. 승무원처녀들의 하나같은 차림새를 봐도 그렇고 자기를 마중나온 사람들을 보아도 그러했다.

비행장은 수도의 교외에 있었다. 겨울이여서 나무들은 앙상하였지만 비행장역사앞의 울울창창한 나무들은 답답하였던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며 한껏 정화시켜주는것이였다.

길 량쪽으로 넓게 트인 벌을 바라보면서 그는 승용차안에서 이 나라에는 공해에 오염되지 않은 청신한 공기가 가득차 흐르고있음을 온 육체로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차는 인차 시내에 들어섰다. 건물들은 비좁지 않게 형성되여있었고 멀리 가까이 둘러봐도 도시가 깨끗하고 정갈하다는것이 그의 첫 느낌이였다. 순수한 조선사람들의 모습이 이 거리에 다 비껴있는것 같기도 하였다.

차는 숙소에 도착하였다. 호텔이 아니라 산뜻하고도 무게있게 꾸려진 초대소였다. 시내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정숙이 깃든 수림속의 집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의 관계일군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맞이하고있다고 생각되였다.

미안하였다. 자기가 조선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책을 보고 또 조선방문자들의 목격담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글로 쓴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기자로서, 문필가로서 응당 해야 할 본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회주의나라들을 다 돌아보았지만 이들처럼 두터운 우애심과 의리심을 말없이 지키는 사람들은 처음이였다.

고마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래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이 세상을 행진해가는 사나이들의 성격은 뚝해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말없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진정을 더 뜨겁게 느낄줄 아는것인지 어이 알랴.

저녁은 즐겁게 동석식사를 하였다. 모두가 친지들처럼 살뜰했고 식탁에 오른 음식들도 민족의 구미를 맞추어놓아 마치 제 집 밥상에 마주앉은듯 했다.

구면지기들인지라 그 지간의 회포를 허물없이 나누었으며 일정계획도 토론하였다. 원래 일정계획은 본국의 의사를 존중하는것이 하나의 틀로 되여있으나 비슈와나스는 원체 그런 틀에 구애되지 않는데 습관되여있는 인물이였다. 그 생활방식이 그 어데 왔다고 해서 달라질수 있으랴.

《나의 체류일정은 3박 4일, 참관지는 아침마다 가고싶은 곳으로!》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손님을 존중할줄 아는 조선사람들이였다. 그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여 그들은 잔을 들었다.

그 이튿날.

비슈와나스에게 승용차가 전용으로 제공되였다.

그를 태운 승용차는 맨 처음 9.15주탁아소에 들어섰다. 그는 오늘아침 탁아소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을 돌아보겠다고 한것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행기승무원처녀들의 말이 종시 내려가지 않고있었던것이다. 탁아소에는 모든 설비들이 다 갖추어져있었으며 깨끗하고 알뜰하게 꾸려져있었다. 방들에는 말을 채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이 땅크, 비행기들을 비롯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있었다.

방의 앞벽면에는 **김일성**주석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어린이들에게 초상화를 가리키며 저분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어린이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초상화

를 가리키자 저마다 다투어 소리치는것이였다.

《아버지!》

《아버지!》

한찬두가 어린이들의 말을 《화더》(아버지)라고 통역해주었다. 비슈와나스는 정말 놀랐다. 《아버지!》그는 입속으로 그 말을 되뇌이였다. 그가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배운 말은 《아버지》였다.

조선은 참으로 신기한 나라였다.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고있으니 어찌 그들이 나라의 위대한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수 있으랴.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었다.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 곳마다에 그런 탁아소, 그런 유치원, 그런 학교들이 국가의 계획적인 투자와 전사회적운동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져있다고 하니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여있다고 생각되였다.

나무모는 심어놓고 내버려두면 애초에 쓸모없이 꼬부라지지만 잘 키우면 곧은 나무로 자란다.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업이 바로 그것과 같은것이였다. 이 문제가 훌륭히 해결되였으니 조선의 미래는 창창한것이다.

유치원아이들도 소학교, 중학교학생들도 모두가 **김일성**주석을 《아버지》라고 스스럼없이 부르고있었다.

비슈와나스의 감동은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시내의 중심을 이루고있는 장대재언덕에 다름아닌 아이들의 궁전이 넓고 화려하게 우뚝 솟아있는것이였다.

도꾜의 중심인 스미다천서부지역이나 뉴욕의 《월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였다. 숱한 나라들을 돌아보았어도 도시의 가장 중심부를 이루는 언덕에 아이들의 궁전이 솟아있는 나라는 없었다.

여기에서 학생소년들은 자기들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

우고있었다. 피아노, 손풍금을 비롯한 악기들을 연주하는 아이들의 손가락놀림이 어쩌나 훌륭한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확언하게 되는것이였다.

아이들은 노래하고있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눈물이 났다. 학생소년들이 훌륭한 과외교양기지에서 국가의 혜택으로 자기들의 재능과 취미에 따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황홀경이였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비슈와나스는 저절로 심취되는것이였다.

그는 후날 자기의 도서에서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최고의 리상적인 착상이라고 썼다.

이 리상적인 착상을 하신분은 **김일성**주석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궁전의 이 터전을 잡아주시였고 건설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여 지덕체교양의 종합적학교이며 과외교양의 거점인 이 학생소년궁전이 평양시의 중심부인 장대재의 언덕우에 높이 일떠섰다고 한다.

소년궁전은 건물의 구조와 형식, 규모도 놀랍지만 후대들을 훌륭하게 교육교양할수 있도록 그 내용이 완벽하게 되여있는것이 더

감동적이였다.

이런 궁전을 마련하여주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키워준 위대한 수령을 이 나라 사람들이 어찌 어른, 아이 할것없이 《아버지!》라고 높이 부르지 않을수 있으랴.

서방세계에도 《아동쎈터》요 뭐요 하는것들이 있지만 교육이 상업화, 영업화되여있는 그 사회에서는 결코 조선에서처럼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이 과학과 예술의 수재, 체육의 명수로 자랄수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재정적담보가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은 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교육받고있었다.

그것이 문명의 모습이였다. 나라에서 교육받는 이 나라의 모든 인간들의 그 면모가 …

조선에서 아이들은 그야말로 나라의 《왕》이였다. 이 나라에서는 제일 좋고 훌륭한 모든것이 아이들에게 돌려지고있었다.

그런 교육의 혜택아래 조선에서는 문맹자가 단 한사람도 없었다. 그 어떤 나라에도 문맹자는 있는것이였다.

인간이 지니고있는 사랑가운데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은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들이 없는 세계는 태양이 없는 세계와 같다.》고 한 말이 오늘까지도 명언으로 전해져내려오는지도 모른다.

김일성주석께서 해방직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회의의정으로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상정토의하시였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선의 어린이들이 어떤 사랑속에 살고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것이였다.

이제사 모든것이 리해가 가는듯 했다. 어딜 가나 그이를 우러러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것이, 스스럼없이 그 처녀들이 그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던것이…

수령과 인민이 혈육의 정으로 뜨겁게 련결되여있는 여기에 이 나라의 기적의 원천이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있는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는 자기 나라 대통령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조선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의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고있었다. 어딜 가나 조선사람들의 이러한 감정은 스스럼없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과 자신심에 넘쳐있는 얼굴은 비슈와나스로 하여금 조선사람들의 깨끗한 충정과 온 나라가 한가정이 되여 화목한 조선의 참모습을 엿보게 하는것이였다.

그로 하여금 또한 놀라게 한것은 조선에서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1974. 3)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조선은 세계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된것이였다.

참으로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이것은 근로자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였다.

놀라움과 감동속에 하루가 지나갔다.

2일째 되는 날 그는 만경대고향집을 찾았다. 이 나라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받들어모시는 위대한 수령의 생가를 그는 진정으로 찾아보고싶었던것이다.

그의 감동은 만경대에서 더해졌다. 모든것이 사실이였다. 책에 씌여진 그대로였다. 현지참관은 책보다 더 감동적이였으며 보다 웅변적인것이였다.

아름다운 만경봉의 한 기슭에 옛모습그대로 보존되여있는 초가집!

너무도 대조적이였다. 지붕우에 밤색칠을 한 기와를 즐비하게 이고 40여칸의 방들이 달린 ㄷ자형의 1 000평방에 달하는 고향마을의 덩실한 자기 집과는 너무도 대조적인것이였다.

자기의 증조부는 19세기 초엽에 그렇게 큰 집을 짓고 500정보에 달하는 광활한 령지의 주인으로 군림했는데 **김일성**주석의 증조부는 19세기 중엽에 초가 한칸마저 마련할수 없는 가난한 생활이여서 평양에 살던 지주가 자기 가문의 산과 묘지를 지키는 사람을 두기 위하여 지은 이 산당집으로 들어오시였다. 19세기 중엽 조선에 침입해온 미국해적선 《셔먼》호와 《쉐난도아》호를 격침, 격퇴시키는 싸움의 앞장에 선 애국자가 바로 이 집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

으시고 농사일을 하시던 그이의 증조부이시였다.

자기의 조부는 식민지하에서도 땅과 돈의 혜택으로 공부를 하고 자식들 또한 공부시켜 그 사회에서도 살수 있는 길에 내세웠는데 **김일성**주석의 조부모님들은 모진 가난속에서도 민족의 절개를 꿋꿋이 지키시며 아드님과 손자분들을 모두 식민주의자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는 혁명투쟁의 길에 내세우시였다.

아, 위대한 가문이시다!

숭엄한 감정에 싸여 비슈와나스는 고향집에 소중히 보관되여있는 혁명일가분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돌아보았다. 가장 인상적인것은 찌그러진 독이였다. 그 독은 식민지의 사슬에 묶이웠던 이 나라 인민들의 피눈물나는 지난날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력사의 증견자인듯 했다.

만경대고향집을 나서며 그는 열려져있는 사립문을 다시한번 눈여겨보았다.

이 문은 자기 고향집의 엄청나게 큰 문에는 대비도 되지 않게 작은 문이다. 비비마을의 언제나 닫겨져있는 자기 집의 그 큰 문으로는 자기 가문의 사람들만이 드나들고있지만 언제나 열려져있는 만경대고향집의 이 수수한 작은 문으로는 온 세상사람들이 다 드나들고있는것이다.

만경대고향집의 이 사립문은 마주오는 무궁한 세월을 향해 활짝 열려져있다. 이 세상에 이처럼 크고 넓은 문이 또 어데 있으랴. 이 문에 한번 들어선 사람은 누구나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을 받아안고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것이다.

정녕 이 문은 성스러운 문이다. 만경대고향집은 정녕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마음의 고향집이다.

태양은 빛난다!

비슈와나스는 태양의 성지를 순례한 숭엄한 기분에 휩싸였다. 자기의 마음속에 쉬임없이 날고있는 그 두루미는 바로 여기, 태양의 성지를 향해 날아온것이 아닐가?!

비슈와나스의 3박 4일의 체류계획은 자기도모르게 연기되였다.

세심하면서도 성급한 편인 그는 조선의 모든것을 직접 눈으로 확

인하기 위해 분주히 돌았다.

그는 평양에서 200여키로메터 떨어진 판문점으로 나갔다.

조선전쟁에 대한 기사도 많이 쓴 그로서는 미군이 조선인민앞에 항복하고 군사정전협정에 조인한 력사적인 장소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싶었던것이다.

남조선을 가로타고앉은 미제는 이 땅에서 전쟁을 도발하였지만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력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던것이다.

참으로 조선이라는 크지 않은 나라가 3년간의 가렬처절한 전쟁에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국의 무력침공자들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 있은것은 강철의 령장 **김일성**주석의 령도가 있었기때문이였다.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에는 《MP》완장을 두른 미군병사들이 껌을 질근질근 씹으면서 서있었다.

저주로왔다. 미군이 저주로왔다.

지금까지 어떤 민족도 위도와 경도로써 분렬된적이 없었다. 오랜 옛날부터 조선은 단일한 국가였으며 단일한 언어와 단일한 생활풍습을 가진 단일한 민족이였다.

미군은 조선에 꽃이 아니라 총을 가지고 온 침략군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권리를 략탈하기 위해 온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앞가슴에 드리운 사진기를 들어 모든것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미군병사들은 얼굴을 돌리며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자체가 참으로 가소로왔다. 그자들도 남의 나라 땅을 가로타고앉은 저들의 몰골이 세상에 알려지는것은 두려운 모양이였다.

조선의 젊은 인민군병사들은 까딱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그냥 서서 규률있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이런 군대는 어떤 강적도 쳐물리칠수 있다는 확신이 저절로 드는것이였다.

그는 판문점에서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그 누구도 유린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것을 더욱 깊이 깨달을수 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원산에도 가보았다. 그곳의 학교들과 병원들,

공장, 기업소 등 여러 분야를 돌아보면서 그는 자기의 견해를 정립해나갔다.

특히 조선의 보건제도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 일러왔으나 장구한 인류력사에 의술이 인술로 된 사회는 없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조선에서만 의술이 진정한 인술로 되고있었다.

어느 문명국에도 의사없는 마을들이 있기마련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의사가 없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의사들이 환자를 찾아가고있었다.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여 매 사람은 주치의사를 가지고있는셈이였다.

환자들의 치료비는 물론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료양소로 오가는 려비까지 국가가 부담해준다니 이 역시 하늘만이 베풀수 있는 혜택이라 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사람들은 모르고 사는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였다. 그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쓰고사는 쌀값과 살림집값조차 모르고있었다. 집없는 사람도 굶주리는 사람도 없었다.

이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지만 고금동서의 그 어느 시기, 그 어디에도 국가가 호주로 되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준 례는 지금껏 없었다.

비슈와나스는 이 나라는 통채로 한가정이 되여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일심단결의 나라라는 확신을 더 깊이하게 되였다.

한주일에 걸치는 그의 조선방문은 매우 효과적인것이였다.

그가 본 조선의 모습, 그것은 인류의 선망과 기대와 동경을 한몸에 안고 력사의 방향타를 잡고나가는 거인의 모습과도 같았다.

조선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떨치며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었다. 《현대문명》과 《고도발전》을 자랑하는 서방나라들이 엄두도 낼수 없는 조선사회의 고상한 모습, 건전한 풍모, 단결의 위력 등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주체사상은 조선의 유형무형의 모든 힘을 흔들어깨우고 위력화하여 비상한 창조와 승리를 마련하고있었다.

미국이 백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던 전후의 페허를 단 수년간에 말끔히 가셔내고 락원을 펼친 위력도, 불과 14년동안에 공업화를 달성한 기적도, 여러 단계의 사회적변혁을 한세대에 이룩한 위대한 승리도 주체사상에 기초한것이였다.

진정 조선에 솟은 천만가지의 세기적창조물들은 세월의 눈비에도 흐려지지 않을 영원한 사상의 화폭이였다.

진리의 기준은 실천이다.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주체사상이 진리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었다.

그를 더욱 흥분시킨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사회가 철저히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사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라는 그것이였다.

프랑스혁명을 돌이켜보면 그때에 든 구호가 자유와 평등, 박애였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자유란 부르죠아지들을 위한 자유였지 결코 백성을 위한 자유는 아니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전세계에 전파한 이후 군대를 아이띠에 파견하여 자유를 위해 일떠선 노예들의 항쟁을 압살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독립을 이룩한 이후에 흑인들에 대한 노예소유제, 인디안들에 대한 멸족과 같은 만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프랑스혁명은 부르죠아지들과 백인들을 위한 자유에 머물렀으며 계급사회에서의 평등에 대하여 아무리 떠들었으나 실제상 평등이란 없었다.

수수천년 인류가 그처럼 갈망하여오던 만백성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 박애는 인간이 존중시되는 조선에서 현실로 꽃펴나고있었다.

그래서인지 교리를 믿는 세계의 각이한 종교인들도 조선의 현실에서 인간사회의 참모습을 보며 주체사상을 신봉하고있는것이였다.

어느 시인이 말했던가. 단 하나의 사상으로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채울수 있다고.

참으로 주체사상은 인간의 넋을 깨우쳐 그의 힘과 미를 무한대로 증폭시키고 인간을 력사의 자주적주체로 내세워주는 《성서》였고 《복음》이였다.

김일성주석은 이 위대한 주체의 정치리념을 만민에게 안겨주

시고 그것을 당대에 실현해나가시는 탁월한 수령이시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이의 접견을 절절히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장경일과 한찬두에게 그이를 만나뵈올수 있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설을 앞두고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계시기때문에 약속은 못하겠지만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 생애에서 조선방문이 늦어진것은 커다란 유감이라고 생각되면서 하루빨리 위대한 수령을 만나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고싶은 간절한 소원이 소용돌이쳤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렇듯 위대하신분께 기쁨을 드릴만한 그 무슨 일도 해놓은것없이 만나뵈옵겠다는것은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혼자서 속다짐하였다.

인류의 태양이시여! 태양의 그 빛발을 온 누리에 떨치는 길에 내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존귀하신 당신을 기어이 뵙겠나이다.

그는 당시 정무원총리였던 김일동지와 외교부장이였던 허담동지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의 현실을 보고 매우 감동된데 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그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핵무기가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리해를 한데 대한 자기의 생각도 털어놓았다.

조선과 인디아 두 나라가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있다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참말로 고무적이였다.

두 나라가 다 쁠럭불가담국가이며 《부대조건이 붙은 원조는 금지》라는데 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또한 두 나라가 다 풍부한 전망을 가지고있고 두 나라 지도자들이 다 자주적인 국가건설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조선은 하나의 민족이 사는 하나의 나라이며 그들의 유일한 수령은 **김일성**주석이시다.

비슈와나스는 조선과 인디아가 참으로 가까운 형제의 나라로 느껴지는것이였다. 조선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 나라를 이끌고계시

며 특출한 업적들을 이룩하시였고 인디아에서는 자와하를랄 네루가 그 모범을 보이였고 오늘은 인디라 간디가 결심품고 나라를 앞으로 떠밀어나가고있다.

광활한 령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나의 조국 인디아가 훌륭한 나라로 일떠설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는 거대한 그 무슨 힘이 꽉 자리잡는듯 했다. 그 힘은 자력갱생의 힘이였으며 주체사상의 힘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이처럼 자기 조국 인디아의 자주적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주체사상을 받아들이였다.

인간은 자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할 때만이 빛나는것이다. 이 진리는 나라가 분렬될 때 직업을 잃으면서 또 그리고 정다운 친구들과도 헤여지면서 가슴아프게 심장으로 체험한것이였다.

조선은 확실히 자기의 색이 있는 나라였다. 많은 나라들을 돌고 돌면서 합성된 색을 띠고있는 그 나라들의 모습을 보아온 그였다.

합성된 색은 자기의 고유한 멋이 없었다. 많은 나라들이 합성된 색을 띠고있을 때 조선은 자기의 고유한 한색을 가지고 세상에 빛나고있었다.

참으로 조선사회는 인간사랑의 정치가 꽃펴나는 《유토피어》, 인류의 리상향이였다.

이 나라에는 특별히 잘사는 《웥가》도 없었고 특별히 못사는 《할렘가》도 없었다. 모두가 평등하고 화목하게 사는 인민의 세상이였다.

세상을 돌아봄은 참다운 지식의 큰 원천이다.

그중에서도 조선을 방문한것은 사변적인 일이라고 그는 생각되였다.

조선민족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였다.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유와 평화를 가장 높이 보장해주는 생명의 젖줄기로 흘러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

재로 여기고 사람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운 사상이며 따라서 인권을 가장 높이 옹호하는 사상으로 안겨왔기때문이였다.

태양은 동쪽에서 솟아올라 전세계를 비쳐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동방에서 솟아올라 세계의 모든 곳에서 어둠을 몰아내고있다.

조선의 빛은 주체사상의 빛이였다.

그렇다. 자유와 평화의 세계를 향해 나래치는 나의 마음속의 두루미는 주체의 그 힘에 떠받들리울 때만이 더 높이, 더 한껏 날아옐수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의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빛나고있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빛나는 자유로운 창공밑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있다. 그도 물론이다. 그 역시 자유로운 창공밑에서 자기 조국 인디아의 인민과 인류를 위해 한껏 복무하고싶었다.

광휘로운 빛발이 천갈래만갈래 뿌려지는 저 하늘에서 그의 마음속의 아름다운 두루미는 유유히 곡선을 그으며 노닐고있는것이였다. 그 두루미는 주체의 나라우에 높이 떠 빙빙 돌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나는 날아옜노라
자유의 창공을 찾아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
온 세상 온 대륙을…

나는 날아옜노라
자유의 노래를 찾아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이 하늘 저 하늘…

나는 날아왔노라
영원한 내 노래의 보금자리

인간의 삶이 꽃피는 나라
인간의 존엄이 빛나는 나라
…

그날은 1974년 12월 25일이였다. 예수를 숭상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즐기는 크리스마스날이였다.

이날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인간세상에 강림하였다는 예수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기원하고있지만 인류를 재난에서 구원해준다는 그 예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지마는지 지구상에는 해와 해를 이어 기아와 빈궁이 계속되고있는 것이였다.

바로 이날에 비슈와나스는 조선의 하늘아래서 예수 아닌 현시대의 진정한 인민의 구세주가 펼친 주체의 락원을 보면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고있었다.

그는 세상에 떠도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있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정하고있었다.

《주체사상이 꽃피는 곳에 사랑이 있다.》

이길이였다.

분렬되는 나라의 비극을 안고 자유인디아가 나아갈 길을 애타게 갈구하던 그길이 바로 주체의 길이였다.

애매하게 재판을 받던 대학생들을 보며 몸부림치던 10대 후반기의 그 시절 어머니조국의 아들된 본분을 다하려면 조국을 빛내이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자각하던 그길이 바로 주체의 길이였음을 40대 후반기에 이른 오늘에야 비로소 인생의 체험으로 확고하게 깨닫게 되는것이였다.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하려면 그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을 따라야 한다.

나의 조국 인디아를 빛내이는 애국의 길을 걸으려면 주체사상을 신봉해야 한다는것, 이것이 좌우명으로 그의 가슴속에 소리없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인간의 사상을 따르는것은 가장 위대한 학문이다.

갈 길을 확정한 사람은 보람찬 삶의 희열을 느낀다.

비슈와나스는 배웅을 나온 장경일과 한찬두에게 선언처럼 말하였다.

《나는 주체사상을 따를것이요.》

그는 마치 큰 산우에 올라선듯 가슴이 활 열리는것을 느꼈다.

지향성이 있으면 생활에 진정한 뜻이 있게 되고 령혼이 깃들기마련이다.

현실을 옳게 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종국에 가서 성공한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인생렬차가 드디여 운명의 분수령을 넘어 생의 끝까지 가야 할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식하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주체의 길, 이는 참된 인생의 길이다!

바로 이길, 내가 가야 할 길은 주체의 길이다!!

2. 태양은 빛난다

비슈와나스는 시를 썼다.

총련에서 충격적으로 받아안았던 시의 착상은 조선에서 무르익었으며 지금 그의 서재에서 분출하는것이였다.

그의 마음속의 두루미는 오늘도 태양이 빛나는 하늘아래서 한껏 나래를 휘저으며 아름다운 노래를 그냥 부르고있는것이였다.

고요한 숲속에 안개흐르고
잠을 깨는 온갖 새들 지저귀는데
푸른 들판에 즐거이 풀을 뜯는 짐승들
피여나는 천만송이 꽃들
태양의 빛발을 우러르네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동산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 동산은 태양의 빛을 받아 더 아름답게 금빛으로 물들여진다.

태양의 그 빛발은 그의 가슴에도 흘러든다. 무아경에 싸인 그의 가슴에서 줄줄이 노래는 흐른다.

노래하며 흐르는 강물우에
춤추며 피여나는 구름우에
그리고 대양우에
눈덮인 언덕우에
황홀한 태양의 빛발은 어려오네

아름다운 노래를 짓는 사람의 가슴은 저절로 설레여진다. 그의 가슴에는 봄날의 바람소리도 들려온다. 처녀들의 노래소리도 들려온다.

태양을 노래하는 시인의 눈에는 세계가 다시한번 아름답게 비쳐지고있었다.

살랑이는 미풍의 정겨운 속삭임에도
처녀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에도
은혜로운 그 빛발 어려있어
인류는 숭배와 찬양의 큰절을 올리는데

아, 태양이 솟는다
우주가 밝아온다
위대한 주체의 그 빛발을 받아
전인류가 깨여나고있다

결구에 가서 그는 소리쳐읊으며 일어섰다.

그렇다. 전인류가 깨여나고있다. 오늘은 내가 깨여나고 래일은 네가 깨여나고 다음은 모두가 깨여난다. 위대한 주체의 그 빛발을 받아 전인류가 깨여나고있는것이다.

아— 아—

비슈와나스는 흥분하여 자기도모르게 방안을 돌아갔다. 그는 시의 제목을 《태양》이라고 달았다.

시인은 세계의 마음이다.

세계는 바로 태양의 빛을 받아 깨여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지체없이 하르지트 씽을 찾아갔다. 그는 《인디안 타임스》의 경영주필이며 인디아에서 유명한 기자였다. 비슈와나스가 주필이고 그가 경영주필이였는데 경영주필은 주필보다 한급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친구였다.

하르지트 씽은 시를 보고 아무 의견도 없다면서 오히려 찬양하는것이였다. 타고르가 예언한 미래의 조선을 비슈와나스가 오늘 훌륭히 노래하였다는것이였다. 그는 또한 이 시는 인디아에서 확고히 타고르 다음으로 조선을 노래한 두번째 시라며 이것은 사적인 작품이라고까지 덧붙이는것이였다.

그 시는 《인디안 타임스》에 즉시 실리였다. 또한 여러 신문들에도 게재되였다. 타고르가 예언한 동방의 밝은 빛이 이렇게 인디아땅에도 흘러들고있는것이였다.

이 시는 국제친선전람관 총서관에도 전시되여있다. 그는 이 시를 위대한 수령님께 접견석상에서 직접 드리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시를 창작한데 이어 곧 도서집필에 착수하였다. 그는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할 도덕적의무를 지닌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도서의 서두에 시 《태양》을 앉히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시작을 뗐다.

《작가는 인생의 영원한 현실과 신성한 진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서 서정적지식을 가지고 꾸며내지 않는다.

태양이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고 성장발전하게 하는 원천이라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진리이다. 태양이 없으면 생물의 성장이 멎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생물은 태양이 없으면 살아남을수 없다. 인간이 자급자족하게 되고 특출한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태양이 존재하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 그이는 인류의 태양이시다.

태양의 그 빛발은 누리를 비친다.

태양의 그 빛발아래 조선의 산과 들엔 오곡백과 물결친다. 사람들은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노래한다. …》

그다음 그는 자신이 총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 받은 큰 충격과 깊은 인상에 대해 섬세한 필치로 쓰면서 오늘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세계에서 존엄있는 민족으로 그 영광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필전투는 낮과 밤을 이어 계속되였다. 비슈와나스는 끝없는 심혼속에 착상을 무르익혀갔다.

문득 크리쉬나에 대한 전설이 떠올랐다. 크리쉬나는 힌두교에서 숭상하는 신의 하나로서 그의 불상은 사원이나 모든 집들의 단우에 다 놓여있다.

인디아에는 크리쉬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강도 있다. 인디아의 남부에 있는 서가츠산줄기의 동쪽비탈면의 해발높이 4 500메터인 사타라부근에서 발원하여 데칸고원을 가로지나 마하라슈트라주, 카르나타카주, 안드라주를 흘러 벵갈만에 흘러드는 강이 바로 크리쉬나강인것이다. 그만큼 크리쉬나는 힌두교들의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이다.

크리쉬나에 대한 이야기는 《기타》(종교책)에 상세히 씌여있었다.

크리쉬나는 만물의 보호신으로서 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인간세상에 내려왔고 브란다운초원의 목축민가정에서 자랐다 한다.

그는 무질서와 노예제도, 무법이 존재하는 땅에 내려와 모든것을 평정한다. 그리고는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또 나타나겠다고 선언하는것이였다.

악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준 그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들과 철학적인 명언들은 오늘도 인디아사람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비슈와나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물

의 보호신》이시라고 생각되였다.

그분께서는 일제가 조선을 통채로 먹고 조선민족을 노예처럼 부리고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시여 모든것을 평정한분이시다. 그이께서는 정말로 무질서와 노예제, 무법이 존재하는 땅을 평정하시여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시고 조선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였다.

비슈와나스는 날이 가는줄 모르고 서재에 붙박혀 썼다. 오후시간을 기숙사에 그냥 있기가 어려워 어디로든지 뛰쳐나가던 라호르의 그의 모습이라곤 하나도 찾아볼수가 없었다. 또한 이럴 때는 거대한 광고업을 이끄는 《인터라즈》의 주인같지를 않았다. 그는 역시 작가였으며 기자였다.

그는 주체사상이 독창적인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썼다.

《쏘베트 땅》을 편집하는 과정에 맑스-레닌주의에 대하여 도통하고있는 그로서는 인차 주체사상의 새로운 측면들을 감수할수 있었던것이다. 모든것은 대비속에 자기의 새로운 면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는것이다.

맑스주의의 구성체계는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사회주의로 되여있지만 주체사상은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구성부분으로 하고있다는데 대하여 그는 포괄적으로 서술하면서 사상리론과 함께 령도방법을 담은 이 사상이야말로 현시기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준 가장 보편적이며 옳바른 지도사상으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마지막에 조선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공헌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렇게 끝을 맺었다.

《조선! 이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나라〉로 특징지을수 있다.

김일성! 그이는 주체의 태양이시다. 주체의 태양이 비치는 자주의 한길로 진보적인류는 보무당당히 들어서고있다.

아, 태양은 빛난다!》

책은 나오자마자 대인기였다. 그 책의 제명은 《태양은 빛난다》(뉴택크출판사. 1975)였다.

글은 그 사람이다.

《인디안 타임스》주필이며 저명한 사회활동가로 알려진 비슈와나스의 이름으로 하여 책은 더 인기있는듯싶었다. 그 책은 인디아에서 처음으로 되는 조선에 대한 장편인상기였다.

비슈와나스는 멀리 떨어져있는 알따브 후쎄인과 아브둘 말라크에게도 책을 한권씩 보내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한길을 가고싶었다. 지난날의 추억을 함께 안고있는 친구들과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뜻과 마음을 같이하며 한길을 함께 가고싶었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받은 감명과 자기의 견해에 대해 동료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은 시대의 사상이라고 하면서 그 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자기의 확고한 의지와 립장을 표명하였다.

많은 동료들이 그의 의사를 지지하였다.

알따브 후쎄인은?!

그 역시 주체사상을 인정하였다. 인정은 하면서도 그는 시대의 사상의 보편성과 생활력은 공명정대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여야 한다고 하는것이였다. 물론 옳은 말이다. 실천만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알따브는 이 지구우에 나날이 더 높이 울려퍼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가깝게 감촉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인민대중의 계급해방을 실현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한 맑스주의는 이미 한 나라를 벗어나 세계적범위에서 증명되였다는 생각만을 앞세우고있었다.

알따브 후쎄인은 사회주의나라들을 하나하나 꼽았다. 아직까지 세계에는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유물사관에 기초한 맑스주의를 자기들의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사상의 보편성과 진리성은 전세계사적의의를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의 생각은 세계를 물질, 경제적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라는데 머물고있었다. 그는 법도 그것을 자로 하여 다

스렸다.

알따브 후쎄인은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의 조건을 밝힌 맑스주의학설을 극구 찬양하고있었다.

아직은 세월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맑스주의가 밝혀주지 못한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실생활로서 다 가르쳐주지 못한 년대였다.

맑스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나라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제국주의와 당당히 맞서고있던 그 시대에 맑스주의는 현실적으로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알따브 후쎄인은 이미 비슈와나스의 글들을 모두 읽고있었다.

그의 글들은 다 공감되였다. 위대한 수령에 대해 공감되였고 인민이 살기 좋다는 그 사회에 대해 공감되였다. 그리하여 그도 일전에 비슈와나스의 부탁을 받은 다음부터는 사회주의조선을 소개하는 글들을 짬짬이 쓰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글들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론증하는 글은 아니였다. 아직까지 그의 인식은 주체사상은 조선의 현실에 부합되는 조선의 사상이라는데에만 머물러있었다.

비슈와나스는 확정적으로 말하였다. 조선의 현실에 구현되여 그 생활력이 증명된 주체사상은 이제 제도에 관계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 파급될것이라고.

《알따브, 이제 나의 말은 증명될거네.》

《나도 그러길 바라네.》

여기에 사람들사이의 차이가 있었다. 한사람은 공감된 사상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고 보급자였다면 다른 한사람은 거기에 대한 객관적투시에 머무른 사람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아무리 친구들사이라 해도 그런 사람은 답답하였다. 아니, 친구들일수록 더 답답하였다.

그는 동창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알따브 후쎄인을 좋아했다. 감성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것을 침착하게 정확히 판별하는 그의 리성은 따라배울만한것이였다.

그래서인가, 알따브!

조선에서 나온 사상을 인정은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랭랭하게

지켜보고있는것은.

알따브! 법관이란 그렇게 랭랭해야 하는가.

아니다, 친구! 가장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이 법관이 되여야 하는것이다.

하물며 사람중심의 세계관이야말로 법관인 당신이 누구보다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이 아닌가?!

비슈와나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다 가깝게는 자기의 친구들이 생활의 관조자, 생활의 향유자보다는 생활의 적극적인 참여자, 생활의 열정적인 창조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주위의 모든것에 대하여 제 삼자의 립장에만 서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학업을 닦던 그 시절에 가장 옳바른것만을 깨우쳐주던 자기의 친구가 가장 옳바른 그길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뛰여들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그가 시대에 뒤지지 않고 언제나 시대에 부합되는 진리만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진정으로 옳바른 법관이 되기를 바랐다.

아브둘 말라크는?!

그는 찬성이였다. 맑스주의정통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칠 자기의 의향을 주저없이 밝히는것이였다. 물론 행동성은 그 사람의 성격에도 관계되는것이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시대의 흐름을 남먼저 감수하고 자기의 학문을 발전하는 현실에 결부할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것이다.

이미 1970년대초에 주체사상에 접하고 마음속으로 공명하고있던 그였다.

《비슈와나스, 나는 파키스탄에 주체사상연구조직을 꼭 내오겠네.》

《우리 서로 손을 잡자구.》

그들은 시대의 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서 서로 뉴대를 보다 깊이하자고 약속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쉬지 않고 계속 글을 썼다. 《인디안 타임스》

지에 아예《조선》이라는 고정란을 설정해놓았다. 련이어 나가는 그의 글들을 사람들은 기다려 읽었다. 《생기를 넣어주는 태양》, 《인민위한 한평생》,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 《조선과 뽈럭불가담운동》등…

자주성의 시대는 태동하고있었다.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주체사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광범한 사람들의 정신령역으로 스며들고있었다.

이런 때 인디아땅을 들었다놓는 일이 있었다.

인디아의 콜카타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녀자개인단식경기에서 이름있는 여러 나라 선수들을 타승하고 조선의 나어린 처녀가 세계선수권을 쟁취하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이 경기를 시작부터 주시하고있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체육애호가였기때문만이 아니였다. 또한 이 경기가 자기 나라에서 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서도 아니였다. 그것은 이 경기의 시작부터 맞다든 모든 선수들을 물리치며 련승하고있는 조선의 애어린 처녀선수가 이목을 끌었기때문이였다. 세계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탁구계의 강자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경기소식들로 모든 신문, 통신, 방송들은 날마다 법석 끓고있었다.

이러한 속에 조선의 처녀선수가 남조선선수와 준준결승전을 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였다.

그 보도를 들은 비슈와나스는 흥분되였다. 조선의 처녀가 무조건 이겨야 했다.

이길것이다. 이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자기 집에 찾아와 비굴하게 놀던 남조선대사관 작자들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왜서인지 차사고가 일어나던 잊지 못할 그밤도 떠올랐다.

그들과의 대결도 아직 끝나지 않은것이다. 어찌보면 이 경기는 나의 대결과도 같은것이다. 그래서 더 무조건 이겨야 했다. 반드시 이길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일어섰다. 그 대결장면을 어찌 텔레

비죤앞에 앉아 화면으로 볼수 있으랴. 그것은 비슈와나스의 성미에 맞지도 않는 일이였다.

그는 즉시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타기에 앞서 그는 인디아의 주요 신문, 방송들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 경기의 승패는 명백한것이니 보도에 지면과 시간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해놓았었다.

콜카타는 뉴델리에서 1 300키로메터 떨어진 동부에 있는 도시였다. 콜카타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직접 사진기를 메고나섰다. 사진기도 그는 제일 좋은 대형특수사진기를 가지고왔다. 구도와 초점맞추기에 리용하는 렌즈와 실지 촬영에 사용하는 렌즈가 따로 있는 그러한 사진기에서는 두개의 렌즈가 함께 움직이게 되여있고 반사거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촬영되는 순간에도 촬영대상물을 관찰할수 있는것이다.

조선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정은 놀라울 정도였다.

정신적으로 공감된 사람의 힘은 끝없이 용솟음치는듯 했다. 그는 이 기회를 조선을 선전하는 좋은 계기로 잡았던것이다.

콜카타의 거리거리에는 탁구선수권대회와 관련한 포스터와 광고, 장식물들이 나붙고 신문, 잡지, 방송과 텔레비죤이 모두 대회의 소식을 경쟁적으로 알리고있었다.

세계의 이름있는 수많은 탁구선수들이 서로 다투는 이번 경기에서 어느 나라 선수가 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로 되겠는가?

이것은 여기에 모여온 세계의 모든 보도진들과 체육전문가, 체육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사였다.

경기장은 시작전부터 토핑뉴스감을 바라고 찾아온 각국의 기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붐비고있었다.

드디여 조선의 처녀선수가 남조선과 대결하는 시각이 왔다. 경기는 시작부터 군중의 와― 와― 하는 환호로 들끓었다.

남조선은 그곳에 와있는 저희네 선원들까지 끌어들여 응원대를 조직하고있었다.

남조선선수는 처음에 방어를 위주로 하면서 떨어지는 점을 변화시키는 전술로 나왔다.

처음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쥔 북조선선수는 대상의 약한 고리인 왼쪽에 속도걸어치기와 포물선걸어치기를 배합하여 넘기다가 오른쪽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들이대군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사진기의 샤타를 누르고 또 눌렀다. 그의 입에서는 《잘한다, 잘해!》 하는 쾌재가 연방 튀여나오고있었다.

남조선대사관 작자님들의 찌그러지는 오만상이 보여오는듯 했다. 충돌하여 파손되였던 그의 자동차가 다시 살아나서 그의 가슴속에서 씽씽 달리고있었다.

후련하였다. 조선의 선수가 한꼴을 넣을 때마다 그는 《잘한다, 잘해!》 하고 웨치며 마음속의 가속답판을 더 세게 밟았다. 가슴속에서 달리는 그 자동차는 날아가는듯 하였다. 날개돋힌 비슈와나스는 하늘을 둥둥 날아예는듯한 기분이였다. 그러면서도 눈은 사진기렌즈에서 떼지 않았다.

남조선선수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를 할 때에는 공격을 자주 들이대여 점수를 올리군 하였으나 북조선과의 경기에서는 완전히 피동에 빠져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바삐 돌아쳤다.

급해맞은 남조선탁구감독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주의를 주었을 때 초조와 불안에 빠져있은 그는 《공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맥빠진 외마디소리만 하는것이였다. 그는 어떻게 하나 이겨보자고 달라붙었지만 북조선의 나어린 선수는 상대방을 련속 수세에 몰아넣었다.

북조선의 선수가 점수를 올릴 때마다 1만여명의 관람자들은 모두 일어나 《코레아!》, 《코레아!》 하면서 환성을 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경기는 북조선의 보기좋은 승리로 끝났다.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는 밀려드는 기자들과 관람자들의 포위속에 들어 겨우 그곳을 빠져나오군 하였다.

즉시 보도진들이 떠들었다. 비슈와나스는 대형특수사진기로 자기가 찍은 잘된 사진들을 다른 신문의 기자들에게도 아깝지 않게 뭉테기로 제공해주었다. 그는 새소식을 남보다 먼저 알리려고 서두르던 어제날의 애어린 리포터가 아니였던것이다. 여기에 온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다 널리 광범하게 소개선전하

자는것이였다.

다른 기자들이 놀라운 경기성적만을 알리며 법석 떠들 때 그는 다같은 조선사람인 두 선수를 놓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썼다. 경기성적과 함께 조선이 겪고있는 민족의 비극에 대해 썼다. 한강토안에서 한피줄을 이은 한겨레가 제 나라 땅도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본의아닌 치렬한 대결전을 하게 된 이 비극의 원인에 대해 썼다. 그는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타고앉아 조선민족의 이 비극을 안아온 미국의 민족분렬책동에 대해 폭로하였다. 그의 모든 기사에는 이렇듯 력사의 진실을 론하는 준절한 목소리가 울리는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있었다.

준결승전에 올라간 조선선수는 쏘련선수와 맞다들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선수에 대해서는 마음이 푹 놓이는것이였다. 그만큼 그는 모든 관중들에게 확고한 자기의 전술적우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아니나다를가 준결승전에 출전한 그는 쏘련선수를 3대2로 물리치고 드디여 결승전에 오르게 되였다. 작은 나라 조선이 대국인 쏘련도 어렵지 않게 넘기고 결승전으로 치달아오르는것이였다.

《여보게 에피모브, 미안하게 됐네!》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으로 에피모브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기자신을 발견하고 내심 놀랐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한번 말해본적도 없는 조선처녀의 편에 서게 되였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2월 16일.

이날 오후 드디여 결승경기가 진행되는 시각이 왔다.

지난번 아시아경기대회탁구경기에서 1위를 한바 있는 중국의 장립선수와 맞다든 조선선수는 1회전에서 아쉽게도 24대26으로 졌지만 참으로 침착하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경기를 의도적으로 운영해가는것이였다.

저것이 바로 조선사람들의 의지력인가.

비슈와나스는 태연자약한 자세로 경기에 림하고있는 조선의 애어린 처녀선수의 침착한 모습에서 오히려 자기의 조마조마한 가슴을 달래이게 되는것이였다.

조선선수는 조급해하는 그 어떤 인상변화도 없이 참으로 자신만만하게 경기를 운영해나갔다. 드디여 그는 중국선수를 3대1이라는 수자로 이기였다. 결국 그는 대국들을 다 이기고 단연 1등의 시상대에 오르게 된것이였다.

그가 《조선》이라는 두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있는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올라 커다란 우승컵과 금메달을 받아안았을 때 만여명의 관중으로 꽉 들어찬 경기장은 터져오르는 환호와 박수갈채로 떠나갈듯 하였다.

국제탁구련맹과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공동명의로 된 《세계탁구녀왕》의 상징인 왕관과 왕띠를 그에게 수여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왕관과 왕띠를 받은 조선처녀의 모습을 찍고 또 찍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박영순이였다.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친 그 처녀의 모습은 인디아의 모든 신문과 잡지, 방송에 그칠새없이 소개되였다. 그 소식은 삽시에 전세계에로 날아갔다.

조선을 널리 소개하려는 비슈와나스의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조선에서 온 체육사절들을 위해 큰 연회를 마련하고 정계, 사회계, 출판보도계의 이름있는 인사들을 초대하였다. 참가인원은 자그만치 300여명.

연회의 주탁에 앉은 세계탁구녀왕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 19살의 나어린 처녀였다.

제노라 하는 기자들이 조용할수 없었다.

몇살때부터 탁구를 했는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기자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대답은 명백하였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나를 키워주셨다.》

기자들은 놀랐다. 그 놀라움은 비슈와나스가 조선비행기에서 처녀들의 말을 듣고 놀라던 그것과 다름이 없었다. 기자들은 자기들의 그 의혹과 놀라움을 비슈와나스의 사리정연한 주해가 있어서야 풀수 있었다. 조선땅에서 실지 보고 느낀것을 그대로 터놓는 비슈와나스의 체험담은 기자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고 조국에 돌아간 그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함께 찍어주신 기념사진이 세상에 전해졌을 때 기자들은 애어린 조선처녀선수의 그 말이 그리고 비슈와나스의 주해가 틀림없이 사실임을 현실로 더 깊이 느끼게 되여 다투어 조선에 대한 글들을 또 쓰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조선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이 비슈와나스 한사람만이 아니였다.

태양은 빛나고있었다.

조선인민만이 아닌 자주와 평화를 념원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은 나날이 더 밝게 빛나고있었다.

위대한 주체의 태양의 빛발은 이렇게 전세계에로 빛발쳐갔다.

3. 환희, 가장 기쁜 날

비슈와나스는 줄곧 생각하였다.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것인가? 그것은 크게 두가지일것이다.

우선 하나는 서로 마주앉는것이다. 신봉자들이 마주앉아 토론해야 할것이다. 아무 일에서나 같다. 동업자들은 자주 만나 이마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서로서로 친숙해지며 리해를 두터이 할수 있고 또 새로운것을 설계하며 앞으로 내달릴수 있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출판이다. 주체사상원전들에 대한 번역출판을 더 많이 해야 할것이다. 각이한 직업을 가진 세계의 광범한 신봉자들이 주체사상을 해설한 글들과 주체사상을 현실에 구현해나가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한 책들을 써야 할것이다. 또한 뷸레찐을 비롯한 기관지나 단행본들을 내야 할것이다.

이외 도서, 사진을 비롯한 전시회들과 해설강연회 같은것들도 할수 있을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우선 국내와 해외 여러곳에 손을 뻗치고있는 자기의 《인터라즈》의 선을 타고 주체사상의 빛발을 뿌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아주 효력을 낼수 있는 선이였다. 그는 지금 인

디아를 벗어나 전세계적범위에서 생각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바빴다. 바쁘게 살아야 했다. 일단 갈 길이 명백한 이상 달음질쳐 가야 했다. 가다가 쓰러질지언정 한시라도 지체할수는 없다. 그것이 그의 의지였고 신념이였다. 그것이 그의 성격이였다.

할 일이 참으로 많았다. 그는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었고 그 연구보급사업을 설계했고 보다 광범하게 인입할 사람들을 선택해갔다. 《인디안 타임스》와 《인터라즈》의 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운명을 걸고 달라붙은 이 일은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었다.

이해의 4월 15일을 맞으며 비슈와나스는 도서 《조선—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한분의 수령》(뉴택크출판사. 1976)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은 비슈와나스가 두번째로 쓴 도서였다. 책은 나오자마자 인기를 끌었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하여 전해에 다시 조선을 방문하여 보다 많은 곳을 돌아보았으며 조선에 대한 자기의 사색을 구체적으로 정립해나갔던것이다.

책에서는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한 묘사와 분석을 몇개 장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하였다.

사람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도 계속 도서를 집필해내고 있는 비슈와나스의 지칠줄 모르는 정열에 대해 탄복하였다.

그해 가을 마다가스까르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가 크게 열리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로서는 1971년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진행된 중근동지역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처음이였고 그이후 이러한 지역 및 국제토론회들이 해마다 진행되고있었다.

마다가스까르토론회는 그때 당시로서는 제일 큰 규모의 국제토론회였다. 이 토론회에는 인디아에서 1명의 대표가 참가하게 되여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말비아를 떠밀었다. 하지만 말비아는 비슈와나스를 떠밀었다. 그것은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가서 배우고 와야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또한 조선대사관이 설립되기 이

전부터 그들과 련계를 깊이 가지고있는 사람으로서 비슈와나스가 자기보다 주체사상에 먼저 접한 사람이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래도 비슈와나스는 말비아를 기어이 떠밀었다. 자기보다 어른이며 인디아정치계에서 권위있는 국회의원이 갔다와서 그 상황을 통보하면 청취자들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 개인의 존재보다 주체사상선전을 더 앞세워 생각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라는 존재는 다 바쳐도 좋았다.

그는 말비아를 적극 내세웠다. 그리하여 말비아는 마다가스까르주체사상국제토론회(1976. 9. 28～9. 30)에 참가한 인디아의 유일한 사람으로 되였다.

말비아가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청취조직을 크게 하였다. 그자리에는 인디아의 모든 주체사상신봉자들과 함께 국회의원들, 정부요인들이 참가하였다.

세계 50여개 나라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대성황리에 진행된 마다가스까르토론회에 대한 통보는 인디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을 한층더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땅크처럼 일을 밀고나갔다.

조선방문후 그의 인생길엔 전환이 일어나고있었다.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면서 자신이 먼저 위대한 주체의 진리로 무장하는 한편 가족들과 동료들속에 주체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그는 뛰여다녔다.

그해 가을 그는 조선에 대한 세번째의 도서를 또 내놓았다. 그 책의 제목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뉴택크출판사. 1976)이였다.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는 이 책에서 총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썼으며 이를 통하여 그 어데서 살건 조선사람들이 안고있는 자기 수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의 근원을 밝히였다.

비슈와나스가 위대한 수령님과 주체사상에 대해서 쓴 모든 글들은 날이 갈수록 못견디게 뵈옵고싶어지는 인류의 태양을 우러러 부르는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노래였으며 드팀없는 신념의 노래였다.

1977년에 들어서면서 비슈와나스는 조선에 대한 3번째 방문을 계획하였다.

탄생 65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싶은것이 그의 마음속소원이였다.

그는 년초부터 자기의 의사를 외무성에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조선대사관에 찾아가서는 이번 방문길에 자기의 소원을 꼭 성취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다싶이 빌었다. 조선대사는 약속은 못하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여러가지로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그는 그이께서 친히 사용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차세트 1조를 제작하기로 결심하고 가장 값비싼것으로 특별히 주문하였다. 그리고 자주 공장에 가 그 세공정형을 알아보며 정밀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

비슈와나스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 은차세트를 바드리 나트 취바는 보고 또 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자기 방으로 가 대를 이어 물려오는 샤르마가문의 은함을 가져오는것이였다.

《하늘의 신에게는 가문의 제일 귀한것을 드려야 한다.》

아버지는 은차세트를 그 은함에 정히 넣는것이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올릴 선물은 준비되였다. 현재 그 선물은 국제친선전람관에 진렬되여있다.

4월 10일.

비슈와나스는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기 바쁘게 마중나온 장경일과 한찬두의 손을 잡고 위대한 수령님의 안부부터 묻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뵈옵는것이 평생소원입니다. 이번에는 꼭 만나뵈옵고야 돌아가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꼭 만나뵈오려는 그의 열망은 이렇듯 뜨겁고 열렬하였다.

그런데 그는 체류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차로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나가계신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참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생신날마저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풍모에 깊이 머리가 수그러지는것이였다.

그처럼 위대한 수령이시기에 꼭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옵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데 있으랴.

하지만 그처럼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분을 만나뵙겠다는 자기의 행동이 너무도 경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자책도 들었다. 그 어떤 정치단체 대표도 아닌 자기를 위대한 주석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 그처럼 분망하신 시간을 내신다는것은 죄송스럽기 그지없는 일로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비슈와나스는 조선의 현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더 많은 곳을 참관하는데 시간을 바쳐갔다.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야 어데 가랴.

품고왔던 자기의 소망이 이번에도 성취될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한감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냥 맴도는것이였다.

다시 비슈와나스특유의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한번 품은 결심은 끝까지 해내야 하는 그 지칠줄 모르는 정신력이였다. 더더구나 위대한 그이만은 꼭 만나뵈와야 했다. 그이의 가르치심만은 꼭 받고싶었다. 그이를 만나뵙기 전에는 이 땅을 떠나고싶지 않은 그의 마음이였다.

체류기일은 이제 불과 이삼일.

한동안 잠잠하던 비슈와나스는 또다시 성화를 먹이기 시작하였다. 다급한 마음을 앞세우며 그는 장경일과 한찬두에게 계속 자기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러던 4월 19일.

비슈와나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가 아침식사를 금방 끝내고 방에 들어와앉는데 장경일이 처녀 2명을 데리고 흥분된 얼굴로 그앞에 나타났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생을 부르십니다.》

《무엇이라고?!》

비슈와나스는 벌떡 일어서며 한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저를?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비슈와나스는 너무도 감격하여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이 닥쳐온 이 순간이 믿기 어렵다는듯 몇번이고 되물었다. 그는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안내자에게 성화를 먹이긴 하였으나 마음속깊이 간직했던 평생소원이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는 너무 기뻐 어린애처럼 껑충껑충 뛰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날 좀 도와주게.》

비슈와나스는 이날을 위해 준비해온듯 와이샤쯔도 넥타이도 다른 새것을 꺼내드는것이였다. 처녀들이 그의 옷들을 날래게 받아들고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제꺽 다시 나타났다. 주름살 하나없이 손질된 옷을 정히 입고 그는 옷매무시를 보고 또 보았다. 처녀들이 빗까지 가지고와서 그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고맙소. 고맙소.》

그는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며 애어린 처녀들에게도 연신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는 한 일군의 안내를 받아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차는 청신한 아침공기를 헤가르며 쏜살같이 달리였다. 차가 앞으로 달릴수록 비슈와나스의 얼굴은 점점 더 긴장한 빛으로 굳어져갔다.

그처럼 위대한분을 만나뵈오면 무슨 말씀부터 어떻게 드려야 할가.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만 두근거릴뿐이였다.

승용차가 교외를 벗어나기 시작하였을 때였다.

동행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차로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 안주에 나가계시기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였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그 일군의 말에 거듭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만민이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그날마저 지방에 나가시여 인민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는 이처럼 위대한 인민의 수령을 그는 아직 본적이 없었다.

비슈와나스는 높뛰는 흥분으로 하여 자기가 어느 사이에 그곳까지 도착했는지도 몰랐다.

차는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건물의 정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다급히 운전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차를 세우시오. 차를 세워주시오. 어서 세워주시오.》
집앞까지 차를 타고갈수 없었다. 위대한 성인이 계시는 집으로는 정중히 몸가짐을 하고 차렷자세로 걸어가야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살구꽃이 한창인 정원에 벌써 름름한 체격을 지니신분이 나와 기다리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승용차가 멎는 순간 그분은 다가오시더니 차에서 내린 비슈와나스의 두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아, 그분이시다!
비슈와나스가 늘 우러르던 초상화의 그 모습이 지금 자기를 정다웁게 바라보며 서계시는것이였다. 광휘로운 그 안광이 순간에 비슈와나스를 휩싸안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비슈와나스는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젊은 나이인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마중하여주신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매사에 침착하고 틀진 그였으나 이 순간에만은 옷매무시를 바로잡을 생각도 미처 하지 못하였다. 순간에 온몸이 땀으로 화락 젖어왔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세계각국의 수반들과 당수들을 적지 않게 만나본 그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였다.
도대체 있을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한 나라의 위대한 수령이 외국의 평범한 사람을 맞으려 밖에까지 나와계시다니?!
아, 인간에 대한 존중과 애정은 이렇게 표현되는것인가?!
인디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였다. 하급관리를 만나자 해도 몇달은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만나도 별로 소득은 없다. 상이나 수상을 만나자면 신청한 다음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설사 만난다 해도 전실에서 몇시간을 기다려서야 서서히 위엄을 빼며 대상의 인물이 나타나는것이 상례로 되여있는것이였다.

하지만 **김일성**주석께서는?!

다르셨다.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을 내놓으신 그분은 역시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성인이시였다.

위인의 위대한 풍모는 이렇듯 보통사람들을 대하는데서 나타나는것인가?!

과시 출중한 인물이시였다. 첫 순간에 그이는 완벽한 인간미의 체현자이시라는 생각이 그의 온몸에 슴배여들었다.

어데 가서나 그 누구앞에서나 도고하고 우월감에 가득찬 자세를 취하던 비슈와나스의 본태는 이 순간에 싹 사라져버렸다.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인간의 겸손성은 이 세상의 모든 거만성을 길들이는 가장 크고 큰 힘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슈와나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오래도록 흔들어주시였다.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 그 인품에 위축되여 비슈와나스는 그이께 두손을 맡긴채 어쩔바를 몰라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온몸이 태양의 빛발을 받아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끼였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비슈와나스는 서둘러 인사를 드리였다.

《주석각하! 뵙고싶었습니다. 위대한 주석각하께서 한 일없는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친근한 어조로 물어주시였다.

《건강합니까?》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건강부터 물어주시는 그 고마움에 온몸이 순간에 후더워짐을 느끼며 대답을 드리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히 지내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비슈와나스와 함께 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비슈와나스는 긴장한 자세로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긴장한 마음을 누잦혀주시려는듯 그

를 데리고 정원을 거니시며 그의 가족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시고 조선의 봄절기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시간을 지체하시였다.

그이께서 구면지기처럼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신다는 고마운 생각이 비슈와나스의 가슴을 적셨다.

비슈와나스는 너무도 황송하고 너무도 황홀하여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만면에 담으신 환하신 미소, 영채로우신 안광, 열정에 넘치신 걸음, 이 모든것은 정녕 인류의 삶을 동경과 리상의 세계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태양, 위대한 성인의 숭고한 모습이였다.

랭담하고 무표정한 서방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의 자세와는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것인가!

한없이 너그럽고 겸허하신 그이의 인품에 비슈와나스는 반하고말았다.

그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한생을 살아온것만 같았다.

비슈와나스는 용기를 내여 말씀을 드리였다.

《저는 이번 각하의 탄생일을 전세계인민들과 함께 자연도 축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각하의 탄생일에 내렸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여 행복하실것과 그리고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조선인민이 계속 번영하고 행복할것을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의를 표하시며 비슈와나스를 데리고 접견장소로 들어가시였다.

소박하고 정결하게 꾸려진 방이였다.

그처럼 자나깨나 흠모하던 위대한분과 마주앉게 된 그의 심정을 과연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어느덧 긴장이 풀리게 된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분이신 각하를 직접 만나뵈올것을 언제나 마음속으로 고대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각하를 만나뵙고보니 저의 기쁨은 한량없습니다. …

각하께서는 전세계에 도덕관념이 없어지고 오직 잔인성만이 존재하고있을 때 이 세상에 탄생하시여 인류를 참혹한 고통속에서 구원하신 인류의 구성이십니다.

각하께서는 세계인민들의 태양이십니다. …

앞으로 세계는 각하의 존함을 인류의 해방자, 인류의 구성, 참된 인간의 창조자로서 금문자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할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조선인민과 함께 **김일성**주석각하의 경사스러운 탄생일을 기념한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전체 인민이 주석각하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때에 주석각하께서 이곳 지방에 오시여 현지지도를 하고계신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말씀올리였다.

계속하여 그는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할 때 녀성비행기승무원의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며 만경대에 가보고 감동을 받은데 대해, 공화국의 여러곳들을 참관하고 받은 충격에 대해 그리고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수록한 영화들을 본 감상에 대해 말씀올렸다.

또한 어느 한 예술영화를 보고 고아인 한 녀성군인이 입당청원서를 쓸 때 자기 아버지의 이름란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써넣는데서 깊은 감동을 받은데 대해,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의 눈부신 현실에서 받아안은 커다란 충격에 대해 자상히 말씀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당신이 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성어린 선물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당신의 가족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과분한 칭송의 말씀을 해준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여 당신과 벗들의 기대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벗일뿐아니라 전우입니다. 나는 당신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전우로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도모르게 눈굽이 달아올랐다.

전우!

이 얼마나 고귀한 부름인가. 생사를 같이하며 싸움의 한길에서 동지적으로 맺어진 벗처럼 가까운 사이가 또 어데 있단 말인가.

전우!

이것은 비슈와나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다시 태여나면서 받아안은 가장 고귀한 영광의 칭호였다.

위대한 스승의 그 믿음이면 이 세상에 더 바랄것이 없었다.

김일성주석께서 크게 한 일도 없는 자기를 전우라고 불러주시니 이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으랴.

비슈와나스는 너무도 황송하여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씀올렸다.

《세계인민들의 위대한 태양이신 주석각하께서 인디아의 작은 한사람에 불과한 저에게 그처럼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많은 시간을 바쳐주시니 저는 정말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웃으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앞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전세계인류가 착취와 압박이 없이 더 잘살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비슈와나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인품에 감동된 나머지 이제 자기가 조국으로 돌아가 벌릴 문필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전에 일본에 가서 총련의 지도를 받는 재일조선인들의 생활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고 말씀올렸다.

비슈와나스는 그들은 거의다 고향을 남조선에 두고있지만 위대한 주석각하의 초상화를 집집마다 정중히 모시고 북반부를 열렬히 동경하면서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드높이 보람찬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고향을 남조선에 두고있지만 공화국북반부의 인민적시책에 감동되여 그들스스로가 우리를

지지해나서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정말 그것은 해외민족력사에 일찌기 류례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탄복하였다.

그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자기는 조선방문의 나날에 많은것을 보면서 알고싶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물어도 좋겠는가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어서 물어보라고 쾌히 응해주시였다.

이리하여 비슈와나스는 그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일련의 문제들을 질문하였다.

그는 먼저 미국은 남조선에 수만여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있으며 최신형의 핵무기를 가져다놓고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고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 있는 최신형의 핵무기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것이며 미국은 세계여론앞에서 핵무기를 감히 쓰지 못할것이라는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비슈와나스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분석평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신에 넘친 말씀에 깊이 공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놈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반동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그리고 7.4북남공동성명을 발표할 당시 평양에 찾아온 남조선《대표》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상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남조선《대표》들에게 당신들은 일본에 막대한 차관을 요구하여 《새 마을운동》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인민들을 못살게 굴고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남조선의 수리화를 무상으로 도와주고 북반부에 많은 석탄과 세멘트를 주겠으니 북과 남이 경제교류를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민족애는 참으로 고결하고 숭고한것이였다.

그런데 그놈들은 담화석상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긍정하고 돌아가서는 다 거절하고 금강산에 공동으로 호텔이나 짓고

일본관광객을 받아들여 돈벌이나 하자고 제의해왔다는것이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보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알면 돌아가서 자기들을 뒤집어엎을가봐 겁나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다음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긴급조치》를 취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공화국북반부의 제의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놈들의 반민족적죄행을 낱낱이 폭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누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가를 온 폐부로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시간은 벌써 1시간 30분을 넘어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담화를 계속하자고 하시며 그를 오찬회장으로 이끄시였다.

황송하였다. 그는 진정으로 말씀드렸다.

《주석각하께서 차리신 점심식사에 초대된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으로 됩니다.》

오찬회장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 곳에서 온 당신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한다고 하시며 잔을 드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솟구치는 격정을 억누르며 **김일성**주석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전체 조선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하여 이 잔을 들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오래동안 헤여졌다만난 자식처럼 따뜻이 대해주시는 어버이의 그 사랑,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소탈하신 그이의 그 인품에 이끌려 마음이 한없이 흥그러워진 비슈와나스는 저도모르게 지금껏 품고 있던 생각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는 위인의 거룩한 모습을 감동어린 눈길로 우러르며 주석각하께서는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가장 위대한분이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시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그의 생활력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을 그대로 말씀올리였다.

비슈와나스는 계속하여 카터가 지난해 대통령선거공약에서 몇년안으로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을 철거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리용하는것이 좋겠는가고 질문을 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며 카터가 대통령선거연설에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들에 대해 《원조》를 주지 않겠다고 한것은 좋은 공약이라고 볼수 있으나 카터가 한 이 공약에는 모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허위성을 낱낱이 까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터가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들에는 《원조》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지금에 와서 남조선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하고있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4～5년안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면서도 미군철거는 일본, 남조선과 합의본 다음에야 실현될수 있다고 하고있는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괴뢰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반대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들과 미군철수문제를 합의본다는것은 불가능한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일본반동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본다는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남조선이 동의한 다음 미군을 철수하겠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편 그가 4～5년안으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것은 자기 임기안에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슈와나스는 모든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터가 자기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리행하는지 그리고 그의 선거공약이 하나의 기만선전인지 아니면 정치적환상을 조성하자는것인지 실천을 통하여 검열해보아야 한다고 명백히 말씀하시였다.

시간은 퍼그나 지났지만 비슈와나스는 알고싶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래서 그는 한가지 문제를 더 묻겠다고 하면서 주석각하께서는 조선통일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을 무엇으로 보시는가고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도는 미국놈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선인민자신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어느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줄수는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선견지명으로 빛나는 그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슈와나스는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자주정신이 매우 강한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심을 심장으로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는것이였다.

옳은 말씀이였다. 그이의 그 자주정신이 주체사상을 낳았으며 그이의 그 힘에 받들리여 조선은 이렇듯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지구상에 빛을 뿌리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관점에서 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카터가 통일된 조선을 접시에 담아서 줄수는 없는 일이라고 긍정하였다.

오찬회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종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비슈와나스가 제기하는 복잡한 국제사회정치적문제들과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그 인품에 스스로 이끌린 비슈와나스는 어려움도 잊고 지금 자기가 쓰고있는 조선에 대한 책이 출판된 다음 직접 **김일성**주석각하께 올릴수 있도록 또다시 만나뵙는 영광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은 이번에 혼자 왔는데 앞으로 부인과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그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내여 담화하자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원래 생일을 쇠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가 평양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오겠다고 할수 있기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곳에 와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나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에 참가하여 술을 마시는것보다 이렇게 로동자, 농민들속에 있는것이 더 기쁩니다.

우리는 이곳에 큰 공장들을 건설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와서 공장건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

내가 평양에서 당신을 만났어야 할것인데 이렇게 먼 곳에까지 오라고 하여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아, 얼마나 위대하고 겸허하신 인민의 수령이신가!

김일성주석께서는 자기보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미안한것은 자기자신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이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심원한 뜻으로 하여 심취되는것이였다.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고락을 같이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가슴뜨겁게 헤아려졌다.

시간은 빨리도 흘러가고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인의 풍모에 더욱더 매혹되여 비슈와나스는 그이의 곁을 떠나고싶지 않았다.

시간은 벌써 3시간 30분을 지나고있었다.

흘러간 시간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한 나라의 수령앞에, 세계가 떠받드는 대성인앞에 선 자신을 잊고있었다는 송구스러운감에 휩싸이게 되는것이였다. 너무도 친근하신 그 인품이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하였던듯싶다.

단 1분동안만 만나뵈와도 더없는 영광으로 받아안았겠는데…

아,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이께서 무려 이처럼 많은 시간을 내시여 만나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실줄이야?!

너무나도 거룩하시여 곁에 서기가 두렵게조차 생각되던 **김일성**주석, 그분은 한 나라의 위대한 수령이시기 전에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성인이시였으며 만민의 어버이이시였다.

천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듯한 부드러움과 그 스스럼없는 소박성에는 누구도 끌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한분이시기에 그이의 덕망은 천하를 덮고 위대한 주체사상은

비상한 견인력으로 인류를 자주의 한길로 이끌고있는것이였다.

만나뵙고보니 사람,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떠받들어올린 주체사상은 그이께서만이 창시하실수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는 아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정중한 자세를 취하며 삼가 말씀드렸다.

《저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여 이 지구상의 인민들의 앞길을 영원히 밝게 비쳐주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의를 표하시며 그를 바래주시기 위해 마당가로 나오시였다.

비슈와나스는 더없이 황송해지는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앞으로 또 오라고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끝없이 솟구치는 마음속격정을 애써 누르면서 비슈와나스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눈굽을 적시였다.

석별의 정을 안고 떠나는 승용차는 어느덧 산굽이를 에돌아 저멀리 사라졌으나 만민의 어버이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자리에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아, 그 누가 반하지 않을수 있으랴.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숭고한 그 세계, 그이의 위대한 그 사랑에!

이날밤 그는 잠못들었다.

내가 왜 진작 이처럼 위대한분을 찾아뵈옵지 못한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걸출한 수령, 가장 위대한 수령을!

좀더 일찌기 만나뵈왔더라면 비록 힘은 적어도 그이의 사상을 받들어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나는 더 큰 보람을 느꼈을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가슴은 새로운 환생의 희열로 끓고있었다.

눈앞에는 그이의 영상만이 안겨왔고 우렁우렁한 그이의 음성이 그냥 귀전에 울려왔다.

비슈와나스는 갑자기 자기의 힘이 백배로 넘쳐나는감을 느꼈다.

그는 옷자락을 풀어헤치고 로대로 나왔다. 그가 바라보는 세

계는 모든것이 새롭게 변모되여 안겨왔다. 사람이 환희에 넘치면 눈익은 모든것들이 그렇게 보여오는것이다.

하늘에서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많은 별들의 이름도 모르고 축복을 받고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하얀 구름이 떠도는 푸른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에 그리고 불밝은 창가들에 미소를 보냈다.

저 하늘아래 나의 조국 인디아는 어디메쯤인가?

모든 대륙우에 떠있는 별들을 한품에 다 안고있는 저 푸르른 하늘아래 생활은 흘러가고있다.

그렇다. 그이는 하늘이시다! 인류를 한품에 안고 굽어살피시는 만민의 하늘이시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하늘을 만물의 근원으로, 태양을 생명의 보호자로 일러왔다.

인간은 하늘을 떠나 존재할수 없는것이라 하여 무변광대한 하늘은 언제나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사람들은 수천년동안 종교의 《성서》들을 하늘이 내린 《인간생활의 안내서》로, 《복음》으로 간주해왔다.

그만큼 하늘에 대한 인간들의 숭배심은 강렬하였다. 그러나 그 하늘이 인간의 소망과 념원을 풀어준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인간은 허구한 세월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줄 하늘의 수호신을 애타게 찾았으나 그것을 꿈으로만 남겨온것이 또한 인류력사의 장구한 흐름이였다.

그러나 하늘은 있다. 보라, 우리의 머리우에 저렇듯 가없이 펼쳐져있지 않는가?!

인간이 가슴속에 하늘을 안고 산다는것은 가장 고귀한 뜻과 가장 신성한 신뢰를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산다는것을 말하는것이리라.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신의 숭고한 덕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둥을 안겨주시였으니 정녕 그분이시야말로 만민의 하늘이시다.

그이는 하늘의 태양이 인간세계의 태양으로 환생하여 내리신

분이시다.

김일성동지!

정녕 그이는 인류를 품어안으신 대성인이시다!

그이이시야말로 진정 타고르가 예언한 바로 그 동방의 밝은 빛이시다.

내 그이를 받드는 길에 한생을 바치리라.

한번 결심한 이상 내 무엇을 주저하랴. 올림프스의 불을 훔쳐 인류에게 가져다준 죄로 영원히 결박되여 고통을 당했다는 저 그리스신화의 프로메테우스적존재가 되여도 나는 주체의 한길을 갈것이다.

새 삶의 거창한 세계가 그의 가슴에 자리잡고 약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 새롭게 부활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참으로 이날은 명절이였다. 일생에서 가장 뜻깊고 가장 환희로운…

새로운 탄생의 환희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간 비슈와나스는 도착한 날 저녁으로 가족모임을 열었다.

그가 안해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이 모인 앞에서 위대한 수령님과의 접견상황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었을 때 온 가족은 그이의 고매하신 풍모에 반하여 모두가 그이를 직접 만나뵈오는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명심들 해라.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가족을 알고계신다는것을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정신적으로 빈곤하면 부자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집안은 모두가 주체사상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자기 정신을 가지고 풍파많은 이 세상을 헤쳐갈수 있다. 우리모두는 그 사상을 구현해가는 길에서 이 나라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온 가족은 비슈와나스를 따라 주체의 길에 나설것을 결의다졌다.

이날 비슈와나스는 가정에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싼또쉬 꾸마리가 류달리 화려하고 향기그윽한 생화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그 꽃바구니를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앞에 정중히 놓고나서 진정이 어린듯한 그윽한 눈길로 비슈와나스를 쳐다보는것이였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눈빛인가.

확언하건대 이런 날에 반짝이는 안해의 눈빛은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오며 주위를 한결 환하게 비쳐준다.

비슈와나스는 싼또쉬 꾸마리가 이때처럼 고와보이기는 처음이였다. 정말이지 자식 여섯을 낳고 살아오는 30년동안 이때가 참으로 아름다와보이는것이였다. 마치 꽃잎이 저 혼자 피여나 아름답듯…

젊어서부터 늘 집을 떠나 사는 자기에 대한 노여움을 그가 언제 한번 표현한적이 있었으며 자기가 가는 길을 방해한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가정에 찬이슬이 내린적은 없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진정이였다.

고마왔다. 말없는 사람의 진정이라더니 그 말은 자기 안해를 두고 나온 말인것 같기도 하였다.

녀성의 전생애는 말없이 가슴에 품고사는 사랑의 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중한것은 사랑이며 인간이 인간에게서 받을수 있는 가장 귀중한것도 역시 사랑이였다.

사랑이 어찌 삶과 동떨어진것이랴. 어찌 보면 사랑은 삶의 전부일수도 있는것이다.

천성적인 성실성과 사심없는 감정을 지니였다면 참으로 그 녀성은 그 어떤 교육으로도 줄수 없는 아름다움을 타고난 녀성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남편이 가는 길을 리해하고 오늘은 또 감동을 표시한 싼또쉬 꾸마리!

비슈와나스의 눈앞에 선 녀성은 정말로 그 이름처럼 만족을 주는 녀성이였다. 결혼당시에는 다 몰랐던 사랑의 그 륜리가, 어찌 보면 인생의 그 륜리가 이제사 그의 가슴속에 뚜렷한 형체를 나타내며 자리잡는듯싶었다.

믿음과 희생, 그것으로 싼또쉬 꾸마리는 오늘까지 남편을, 가정을 떠받들어온것이였다. 그것이 사랑이였다. 그것이 사랑의 조건, 사랑의 담보였다.

아버지가 일찌기 말하였듯이 싼또쉬 꾸마리는 진짜였다. 자기의 헌신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는…

그래서인가, 비슈와나스는 21살의 새파란 나이에 무턱대고 안겨지는 결혼이라는 《벼락》을 맞았지만 살면서 자기의 결혼이 불행하다는감을 언제 한번 느껴본적이 없었다.

이 세상에는 저희들끼리 좋아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자기들의 결혼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가정의 따뜻한감을 살면서 점점 느껴온것이였다. 생활은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것이다.

아이들이 줄줄이 태여나는 가정이라는 조건에서의 사랑은 더없이 소중한것이였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어쩌면 그렇게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오.》

비슈와나스는 포옹하였다. 안해를 진심으로 뜨겁게 뜨겁게…

싼또쉬 꾸마리의 머리는 벌써 은백색을 띠기 시작했지만 천성인듯한 그 순진한 미소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다.

싼또쉬 꾸마리도 감격해하였다.

녀성들에게 있어서 남편의 기쁨은 생의 전부이기도 한것 같았다. 아마도 그것은 거의 모든 녀성들이 자기들의 인생이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 총화지어진다고 생각하고있기때문인것인지.

그래서 남편들에게 있어서 안해는 아름다운것인가.

부부애, 가정애는 틀림없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완성해가는듯싶다.

새 탄생의 환희는 사람도 가정도 젊게 만든다.

비슈와나스의 가정에 가슴을 뛰게 하는 생활이 흘렀다.

그날부터 그의 집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한 영상앞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생화들이 그윽한 꽃향기를 풍기며 싱싱하게 피여있었다.

4. 보답의 길

보답해야 했다. 위대한 스승의 그 믿음에 보답해야 했다. 그것이 인간이다.

비슈와나스의 심장은 걸음마다 속삭였다.

한 일없는 이 소인을 벗으로, 전우로 불러주신 위대한 인간의 그 믿음에 내 한생을 다 바쳐 보답하리라!

인류의 대성인의 축복을 받은 크나큰 환희와 감격을 안고 그는 뛰고 또 뛰였다.

우선 그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국가적인 하나의 큰 조직체를 내올 구상을 하고있었다.

마주앉아 토론을 하자 해도 그렇고 출판물을 배포하자 해도 그렇고 모든것은 치밀하게 째인 조직을 통해야 신속성을 보장하고 범위를 부단히 넓혀나갈수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활력있고 영구적으로 내밀자면 명백히 강위력한 조직이 있어야 했다.

숲이 있어야 새들이 찾아들수 있고 조직이 있어야 사람들을 결속할수 있는것이다. 별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빛날수 있고 신봉자들은 주체의 태양의 빛을 받아야 자주화된 새 세상을 건설하는 빛나는 길을 걸어갈수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초기 광고, 출판업에 나설 때에도 《인터라즈》를 내왔었다. 하지만 지금 내오려고 하는 이 조직은 그런것과는 전혀 다른것이였다.

자주화된 세계를 지향하는 공통의 리념을 안고 정신적뉴대로 맺은 지성인들의 집단을 그는 꾸리려고 하는것이였다. 이 집단에는 인디아의 명망높은 학자들이 다 망라되여야 했다. 또한 나라의 권위있는 정치가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응당 망라되여야 했다. 위대한 사상의 연구조직성원들은 반드시 그렇게 구성되여야 한다고 철두철미 그는 생각하였다. 그다음 주들과 중요도시들 그

리고 여러 부문들에 산하연구조직들을 내오고 광범한 대중을 계몽시켜 여기에 다 망라시켜야 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이 조직을 빠른 시일에 내오려고 바삐 뛰고 또 뛰였다.

1977년 5월 중순.

드디여 인디아에서 국가적성격을 띠는 《주체사상연구학회》가 결성되게 되였다.

새로운 시대사상의 전국적인 연구조직을 공식적으로 결성하는 판잡이는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판잡이는 륜환선거리 라쥐빠뜨나가르지역에 자리잡고있는 큰 회의장이였다. 그 회의장은 판잡이종족학회에 속해있었다. 비슈와나스의 가문도 판잡이종족이였으므로 그 회의장을 리용하였던것이다.

정부의 각료들과 대학의 이름있는 학자들, 여러주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회의장은 차있었다.

비슈와나스는 학회위원장으로 에취. 디. 말비아를 추천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사전에 그와 긴밀한 련계를 가졌고 학회의 주요인물선발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를 통하여 추천하게 하였던것이다. 역시 비슈와나스는 할줄 알았다. 그는 조직사업의 능수였다.

말비아는 학회성원들을 발표하였다.

학회는 명망높은 인사들과 대학의 권위있는 교수들, 저명한 사회활동가들로 구성되였다. 국회의장도 있었고 인디아공산당 총비서도 있었다. 또한 이전 상들도 여러명 있었다. 현직의 국회의원들만 하여도 20여명이였고 알려진 과학자, 교육자들이 수십명이였다.

비슈와나스가 이 학회의 서기장으로 선출되였으며 학회의 사명과 활동준칙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였다.

학회는 주체사상을 전인디아땅에 연구보급할 사명을 지니고있었다. 학회는 해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주체사상전국토론회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많은 도서들이 학회성원들에게 배포되였다.

이날을 위해 비슈와나스는 이미 주체사상과 조선을 소개한 도서들을 수백부 마련해놓았던것이다. 역시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리용할줄 아는 그였다.

《주체사상연구학회》의 탄생을 기념하여 비슈와나스는 연회를 차렸다. 참으로 이날은 아깝지 않게 차릴만한 날이였다.

이날에 비슈와나스의 가슴을 그렇게도 설레이게 하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령토에서나 인구에서나 대국에 속하는 인디아를 대표하는 주체사상연구조직의 공식적인 결성은 미구에 대륙과 세계적인 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을 확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그 중추를 마련한것으로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이였다.

그의 구상은 멀리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 또 한걸음 크게 내디디였다는 그의 자부심은 참으로 큰것이였다.

이 조직은 곧 정부에 등록되였다. 원체 인디아정부에서는 그 어떤 조직도 쉽게 등록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그 모든것을 결심품고 해나갔다. 그는 시작부터 정부의 승인과 지지하에 합법적으로 위대한 사상을 온 나라, 온 세계에 확산시킬 잡도리였다.

그다음 그는 수상을 만났다.

주체사상에 대해 열렬히 이야기하는 비슈와나스에게 인디라 간디는 《나는 주체사상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수상의 지지를 받은 비슈와나스는 학회의 사업을 나라의 사업으로 간주하면서 각료들부터 이 사업에 인입되도록 이모저모로 작전을 펴며 뛰여다녔다.

그가 처음으로 학회의 지부를 내온 곳은 인디아의 북부 우타르주에 있는 도시 알라하바드였다.

강가강과 쟈무나강이 합쳐지는 부근에 자리잡고있는 그 도시는 인디아에서 가장 큰 교육중심지의 하나로서 네루와 간디가 출생한 곳이였다.

알라하바드는 인디아북부에서 가장 오랜 도시의 하나이며 힌두교성지의 하나로서 일찍부터 이곳은 인디아인민의 력사와 생

활의 거점으로 되여왔다. 해마다 한번씩 있는 욕불절(부처님이 목욕하는 날)에는 평균 25만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배하며 12년에 한번씩 있는 큰 명절이면 100여만명의 힌두교신자들이 또한 여기서 참배하고있었다. 알라하바드는 뉴델리와 콜카타를 련결하는 철길, 자동차길의 요지였다.

바로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주체사상연구조직망을 확대해감으로써 비슈와나스는 보다 광범한 사람들을 여기에 인입하려고 했던것이다.

주체사상연구학회는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실지로 살아움직이는 강력한 조직이라는것을 그는 온 세상에 보여주고싶었다.

그는 밤을 패며 일하였다.

바로 이런 때 **김일성**동지께서 그들부부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조선대사관을 통하여 그에게 전달되였다.

뜻밖에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아안은 비슈와나스와 싼또쉬 꾸마리는 꿈인듯 어리둥절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그들부부에게 보내주신 선물은 그이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였다.

비슈와나스부부는 그 시계를 보고 또 보며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에 휩싸였다.

착칵착칵…

초침은 돌고있었다. 지구의 자전만이 아닌 시대의 지도사상을 따르는 참된 삶의 영원한 시간을 가리키며 초침은 돌고있었다.

아, 위대한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안겨주신 이 시간에 내 살리라, 영원히 이 시계의 초침에 맞추리라, 변심없을 이 심장의 박동을!

비슈와나스부부는 감격했고 행복했다.

인류의 대성인께서 멀리 떨어진 인디아의 한 전사의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을 주시며 지켜보고계신다는 그 한생각만으로도 그들은 이 세상에 태여난 삶의 가치를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쉬지 않고 뭄바이, 콜카타, 마드라스에로 걸음을 이어갔다. 인디아의 주요도시들부터 시작하여 그는 전국에

주체사상연구조직망을 부단히 늘여갔다.

싼또쉬 꾸마리도 이에 적극 합세했다. 그는 찾아오는 수많은 신봉자들을 가족처럼 대했으며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일이라면 말없이 움직이군 하였다.

조용히 《쉬바신》을 우러러 가정의 화목과 길함을 빌던 그가 이제는 남편이 가는 길에 따라서며 주체의 밝은 빛이 빛나는 인류의 앞날을 기원하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스승의 품에서 새롭게 태여나 보답의 길을 걷는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나날이 아름다와지고있었다.

그런 인간들의 걸음걸음에 떠받들리여 처음에 개별적인 선각자들에 의하여 진행되던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은 부문적인 연구소조들을 거쳐 1970년대에 와서는 이렇듯 전국적인 조직들로 보다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및 국제토론회들이 막을 열기 시작하였다.

5. 심장의 웨침

조선의 가을은 아름답다. 하늘은 푸르고 땅우엔 오곡이 물결친다. 이 풍만한 대지에로 5대륙의 사람들이 물결쳐오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엔 환희의 감정이 한껏 어렸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신봉자들임에야.

각 대륙의 손님들을 맞이한 평양은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였다. 거리거리에 나붓기는 공화국기들, 기발들…

평양은 아름다운 노래의 도시이다. 듣던바 그대로다. 처음 오는 사람도, 자주 오는 사람도 이 도시에서는 깨끗해진 마음으로 미래를 관망하며 주체의 빛발을 받아안는다.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진행되는 인민문화궁전에서는 비슈와나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있었다. 그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울려퍼지고있었다.

《토론에 앞서 저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지평선우에 높이 솟으신 태양이시며 자유를 념원하는 세계인민들의 가장 존경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 감사의 정을 표하고싶습니다.
저는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몇줄의 시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그는 감정을 고루는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엄숙한 감정으로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고요한 숲속에 안개흐르고
잠을 깨는 온갖 새들 지저귀는데
푸른 들판에 즐거이 풀을 뜯는 동물들
피여나는 천만송이 꽃들
태양의 빛발을 우러르네

노래하며 흐르는 강물우에
춤추며 피여나는 구름우에
그리고 대양우에
눈덮인 언덕우에
황홀한 태양의 빛발은 어려오네

살랑이는 미풍의 정겨운 속삭임에도
처녀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에도
은혜로운 그 빛발 어려있어
인류는 숭배와 찬양의 큰절을 올리는데

아, 태양이 솟는다
우주가 밝아온다
위대한 주체의 그 빛발을 받아
전인류가 깨여나고있다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를 일으키며 끝없이 설레이였다.
시의 구절구절에 맥맥히 흘러넘치는 주체의 태양에 대한 절대적

인 숭배의 정은 오랜 기간 비슈와나스의 마음속에 축적된 심장의 웨침이자 회의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벗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온 세상이 모인 평양국제토론회장에서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는 자기 주인을 바라보는 싼또쉬 꾸마리는 크게 감동되였다. 자기 주인이 이렇게도 높은 연단에서 전세계의 찬탄을 받는 일을 하고있었단 말인가.

녀성은 갈망하는 존재인듯싶다.

주체의 나라에 처음으로 온 싼또쉬 꾸마리에게는 모든것이 한순간에 명백히 안겨왔다. 이 회의장이 모든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주체의 힘은 과연 큰것이였다.

주체의 길, 이는 력사의 질곡을 박차고 인류가 나아갈 진리의 길임이 틀림없었다.

녀성이 진리를 감수하면 가정이라는 사회의 세포는 보다 생기를 띠게 된다. 자기 시대의 의무를 자각한 사람들은 그것을 리행하는 길에 스스럼없이 합류하게 되는것이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아브둘 말라크의 가슴도 흥분으로 한껏 설레였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최고재판소소속 변호사인 모하메드 이슬람 나기와 함께 왔다. 그의 조선방문은 처음이였다. 알따브 후쎄인은 섭섭하게도 오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비슈와나스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퍼지고있었다.

《…현대의 가장 탁월한 천재이시며 리론가이신 위대한 사상가께서 긴장한 활동을 거치시여 생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의의를 부여하신 나라에서 본 토론회를 가지게 되였다는 그자체가 **김일성**주석각하에 대한 가장 열렬한 찬사로 되는것입니다.》

그는 주체는 그야말로 력사의 리정표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 리론실천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그의 토론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깊이 공감하였다.

《**김일성**주의로 불리우는 주체사상은 아직까지 인간이 실현할수 없었던것들을 실현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진 하나의 철학이다.》라

는 제목으로 비교적 길게 한 그의 토론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아브둘 말라크도 연단에 나와 《교육과 예술에서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다.

첫날 회의가 성과적으로 개최된 1977년 9월 14일.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과 성원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시며 금수산의사당의 넓은 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모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토론회에 참가한 주요성원들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영광의 그자리에는 비슈와나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비슈와나스는 말씀드리였다.

《카터는 선거공약에서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무기들을 끌어들이면서 남조선괴뢰들을 재무장시키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주석각하께서는 북남조선의 통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다고 보고계십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대표단성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어쨌든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자신의 힘에 의하여 해결될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수 있겠지만 조선의 통일은 조선사람에 의하여 이룩될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사람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

미국놈들이 남조선에 와서 폭격훈련을 하는것은 우리를 위협하자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놈들은 허황하기 짝이 없는 놈들입니다. 우리는 놈들의 이런 허황한 행동에 속지 않을것입니다.》

모든것을 주체적관점에서 분석하시는 그이의 자신만만한 음성은 비슈와나스의 가슴에 새로운 힘과 신심을 더해주는것이였다.

이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단성원

들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주시였다.

토론회는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대양주 등 세계 모든 대륙의 73개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89개의 당, 정부대표단, 광범한 사회계대표들이 참가한 평양국제토론회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연 4일간에 걸쳐 계속되였다.

근 100명의 대표들이 연단에 나와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나는 지레대만 있으면 지구라도 우주의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다고 한 고대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지지점도 지레대도 얻지 못하였으며 지구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상계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지점을 찾아주시였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 주체사상이다. 우리들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그 지레대는 … 인민대중이다.》

《**김일성**, 주체》, 《주체, **김일성**》의 웨침소리로 끓어번지는 대회장…

주체사상의 창시자에 대한 참가자들의 신봉은 절대적인것이였다.

주체사상이 세계적범위에로 급속히 확산되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는바는 아니였지만 주체사상이 이토록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고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한 비슈와나스였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이 세상 각 대륙의 사람들이 공통된 목소리로 웨치는 그 이름 주체!

아, 저 웨침, 저 환희는 력사밖에 밀려났던 인민대중을 세계의 주인으로, 힘있는 존재로 내세워준 위인과 그의 사상에 대한 찬가가 아니겠는가.

세계의 그 찬가를 들으며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신봉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더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또한 참가자들의 일치한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토론회의 기본문건인 평양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많은 대표들이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세계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국제적인 연구조직을 내올데 대하여 제의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이 제의를 일치하게 찬동하고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을 위한 사업에서 또하나의 큰 전진으로 되는것이였다.

참으로 이번 토론회는 전세계에서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 력사적사변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이러한 세계적인 무대의 연단에서 인디아를 대표하여 토론한 유일한 사람으로 되였다.

토론회가 끝난 날 비슈와나스는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문을 열기 바쁘게 싼또쉬 꾸마리앞에 간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락착되였소. 다음번 국제토론회를 뉴델리에서 하기로 말이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군요.》

싼또쉬 꾸마리도 자리를 차고일어나며 기쁨에 겨운 어조로 속삭였다.

비슈와나스는 평양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디아를 떠날 때 하나의 소원을 안고왔었다. 그것은 인디아인민들이 주체사상의 진수를 똑똑히 알고 새 사회건설에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서게 하기 위하여 다음번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인디아에서 열었으면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한편 5대륙의 지성인들과 시대의 선각자들이 다 모이는 그렇게 큰 국제토론회를 한번 준비해본 경험도 없고 준비정도도 미숙한 자기들이 과연 해낼수 있을가 하는 주저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잠들지 못해하는 그가 그런것에 치우쳐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수는 없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는것이 그의 굳어진 생활방식이였으며 의지였다. 하여 그는 이번 조선방문을 계기로 자기의 이 계획을 토론회 서기국과 공화국에 열렬히 제기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다음번 주체사상국제토론회는 1979년에 인디아에서 열

기로 합의를 보게 되였다.

이것은 세계적인 판도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조국, 인디아에서의 진정한 인간해방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것이였다.

그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하나 실현되여나갔다.

세계의 모든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비슈와나스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는 세계의 많은 선각자들을 벗으로 사귀게 되였다. 야스이 가오루, 오가미 겡이찌, 아길라르 불가렐리,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

인간에게 있어서 리성적인 벗들을 가진다는것은 더없이 귀중한 재부를 얻는것으로 된다. 그것도 세계적범위에서 한길을 가는 벗들을 가진다는것은 생활의 전변이 아닐수 없었다.

비슈와나스는 숙소에서 그들모두와 밤가는줄 모르고 이야기하였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저마다의 생활경위를 안고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여 평양에서 한순간에 흉허물없는 사이가 되는것인가.

그것은 주체! 주체였다.

주체는 이들모두를 한순간에 하나로 이어주는 공고한 뉴대였다.

주체!

이 한마디에 공통된 지향과 리념, 사상이 다 비껴있기에 주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사귀지 않았어도 이 한마디로 정을 두터이 하게 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선생! 고맙소. 우리도 적극 협력할테니 모두가 힘을 합쳐 다음번 국제토론회를 뉴델리에서 잘해봅시다.》

야스이 가오루는 비슈와나스의 두손을 잡고 이렇게 절절히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이번에 국제적인 주체사상연구조직을 내오기 위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비슈와나스는 그의 고무격려에 가슴이 젖어왔다. 정말로 고마운것은 그였다.

야스이 가오루로 말하면 1950년대 중엽에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를 창설하고 그 초대리사장으로 맹활약을 하여 세계의 이목을 끈 사회활동가이며 명망높은 학자였다.

《반전, 반핵, 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활동을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적극 벌린것으로 하여 그는 국제레닌평화상과 도이췰란드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일찌기 청년시절부터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해오면서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봉해온 사람이였다.

그러던 그가 1970년을 전후하여 주체사상에 접한 때로부터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자!》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때보다 더 분발하여 맹활약을 하고있었으니 그가 세계에 준 영향은 참으로 큰것이였다.

그는 1972년 4월에 평양에서 열린 조선의 전국사회과학자대회의 연단에서 참가자들을 향하여 휘황찬란한 미래에로의 길을 개척하는 모든 투쟁에서 싸우는 인민, 싸우는 혁명가, 싸우는 과학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정열, 용기와 지혜를 안겨주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어깨겯고 나아가자고 절절히 호소한 사람이였다.

그는 이미 위대한 수령님을 몇차례 만나뵙고 주체사상신봉자로 이 세상에 태여나 주체사상연구보급에 온 정력을 바쳐가고있는 선배신봉자였다. 이런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 그만큼 체험한것으로 되는것이다.

이러한 선배들과 동료들의 지지를 받으며 비슈와나스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지는것이였다.

《야스이 가오루선생! 명심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조직을 내오기 위한 선생의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스이 가오루 역시 흥분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는것이였다.

《나는 이번에 조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성스러운 중책을 지니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 나이 일흔이고 병으로 앓는 몸이지만 모든 일을 제껴놓고 이 사업을 용감하게 정력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빠른 시일에 주체

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을 내올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비슈와나스는 그때 야스이 가오루와 오가미 겡이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고 진정한 주체사상신봉자라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귀국하는 길에 부인과 함께 도꾜에 있는 총련을 방문하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3년전 총련을 방문하고 받아안았던 그 감동이 아직도 가슴속에 그냥 남아있는 그였다. 총련에서 큰 충격을 받고 그때 곧장 평양으로 왔던 그가 오늘은 평양에서 곧장 총련으로 가려고 하는것이였다.

총련사람들이 보고싶었다. 자기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처음으로 평양방문길을 도와준 그들이 보고싶었다. 또한 싼또쉬 꾸마리에게도 공화국에 이처럼 훌륭하고 믿음직한 해외공민단체가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싶었다.

1977년 9월 26일.

이날은 비슈와나스부부가 방문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기 전날이였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들부부를 만나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금수산의사당에서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한번 만나뵈옵고는 더더욱 뵙고싶어 못내 그리웁던 태양의 그 모습이였다.

담화실에 들어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부부에게 자리를 권하시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당신이 올해 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이번에 평양에서 열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인과 함께 우리 나라를 다시 방문해준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는 그들부부의 건강이며 가정생활형편에 대하여 묻기도 하시고 우리 나라 체류기간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를 알아도 보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가 부인과 함께 조선을 방문할수 있도록 초청하여주신데 대하여 **김일성**주석각하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올리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분이신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뵈옵는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

위대한 주석각하께서 저희부부에게 보내주신 선물은 대를 이어 보존할 귀중한 가보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웃으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당신에게 보낸 선물은 소박한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념으로 당신과 당신의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런 틀도 차리지 않으시고 가정적분위기속에서 말씀하시는 그이의 고매한 인품에 비슈와나스부부는 머리가 숙어지며 감동되였다.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접견하는 싼또쉬 꾸마리는 더없이 감격했다. 그는 조선방문기간 자기가 보낸 행복한 나날들이 어떠한분의 보살핌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만나뵈올수록 인자하고 겸허하신 **김일성**동지의 인품에 감동된 나머지 자기의 생각을 기탄없이 말씀드렸다.

《주체사상은 인류를 위하여 응당 전세계에 전파되여야 합니다.

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전세계인민들이 들고나가야 할 중요한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

주석각하께서는 전세계에 빈궁과 실업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여 놓으셔야 할 임무를 맡고계십니다.

주석각하께서는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이 나아가야 할 옳은 길을 밝혀주고계십니다.

그러므로 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세계에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우리에게 준 임무입니다.》

계속하여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신봉자로서 자기가 그 기간 한 사업과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였으며 또

한 이번에 평양에서 열린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와 다음번 국제토론회를 인디아에서 진행해야 할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연구소조는 매개 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해설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이 세상 가장 귀중한 금언으로 비슈와나스 부부의 가슴에 새겨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믿음어린 눈길로 비슈와나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인디아에 당신과 같은 저명한 친우를 가지고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 순간 비슈와나스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위대한 스승의 더없이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그는 그저 감격했고 송구했다.

싼또쉬 꾸마리는 밝고밝은 새 세상에 들어선듯한 심정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도모르게 속생각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저는 우선 위대한 수령이신 주석각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날 주석각하께서 쓰신 로작들을 많이 읽어보았으며 또 주석각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위대한 주석각하를 직접 만나뵙는 커다란 영광을 지닌 잊지 못할 날입니다.

저는 이번에 귀국을 방문하여 주석각하께서 마련하여주신 훌륭한 귀국의 현실을 직접 보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주석각하께서 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싼또쉬 꾸마리의 축원의 인사에 사의를 표하시였다.

싼또쉬 꾸마리는 그에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드렸다.

《**김일성**주석각하는 만민의 태양이십니다.

저희들은 집에 주석각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삽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주석각하를 만나뵈올것을 생각하였을뿐아니라 그

런 꿈도 꾸었습니다. …》

비슈와나스는 놀랐다. 평시에는 말이 없던 싼또쉬 꾸마리가 그렇게도 말을 술술 잘할줄은 몰랐다.

세계무대에 녀성들이 자기들의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인디아에서도 오래전부터 녀성들은 얼굴을 가리우고 다니였다. 싼또쉬 꾸마리도 례외가 아니였다. 그러던 그가 오늘은 세계무대의 초점을 한몸에 모으고계시는 위대한 주석님앞에서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있는것이였다.

사실 마음속 한켠으로는 그가 실수나 하지 않을가 하는 근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그렇게 활기에 넘친 싼또쉬 꾸마리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는듯싶었다. 위대한 성인의 넓은 도량과 뜨거운 인정미가 그로 하여금 자기도모르게 심장의 문을 열게 한것이리라.

《저는 귀국에 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도 그들의 내면세계와 모든 인민이 행복하게 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것을 배웠으며 또 많은 교양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습니다. …

귀국의 어린이들은 매우 행복하게 자라고있습니다. 저는 교원들이 어린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있는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돌아가면 조선에서 어린이들을 가장 훌륭히 키우고있다는것을 인디아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하겠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모든 이야기를 주의깊게 다 들어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인이 이번에 이렇게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주어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전우이며 형제이며 동지이기때문에 외교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국주의가 없고 압박과 착취가 없는 새 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싼또쉬 꾸마리는 자기들을 전우로, 형제로, 동지로 대해주시는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고결하고 인자하신 그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한생 《쉬바신》을 숭상하는 싼또쉬 꾸마리는 이 땅에 참말로 악을 징벌하시고 사랑을 펼쳐주신분이 다름아닌 **김일성**주석이라고 마음속깊이 감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슈와나스가 쓴 도서와 시에 대해서도 아주 잘 썼다고 평가해주시였다.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는 학생의 마음이 되여 비슈와나스의 마음은 붕 떴다. 그는 지금 쓰고있는 책에 대해서와 이제 그 책이 출판되여 나오게 되면 주석각하께 한부 보내올리겠다는것을 말씀드렸다.

계속하여 비슈와나스는 자기부부가 래일 도꾜에 가게 된다는것과 거기에 가서 총련간부들을 직접 만나 그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것을 말씀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총련에서는 총련전체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저는 총련전체대회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당신이 총련전체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그 대회는 더 훌륭한 대회로 될것입니다.》

김일성동지의 더없는 믿음을 받아안은 비슈와나스는 흥분하여 말씀을 올리였다.

《저는 이전에 조선대학교를 방문하여 주석각하께서 조선대학교에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석각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것은 우리가 응당 하여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비슈와나스부부는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일수록 더 각별히 생각하시는 인민의 어버이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한없이 넓고넓은 사랑을 이 순간에 다 체험하는듯싶었다.

그들의 가슴은 불타고있었다. 온 세계의 자주화와 진보를 위

하여 주체의 태양을 영원히 따르며 그 빛발을 온 누리에 펼쳐갈 한 마음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헤여지시면서 다음기회에 시간을 충분히 얻어 이야기하자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비슈와나스부부는 자애로운 보살피심에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잊지 못할 평양방문이였다.

이 방문은 주체의 조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세계적인 국제토론회연단에서 자기 심장의 시를 터치고 세계의 주체의 벗들을 사귀였으며 자기부부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접견까지 받아안는 최대의 영광을 지닌 참으로 잊지 못할 인생의 행복한 한페지였다.

6. 못잊을 총련을 다시 찾아

초면보다 구면이 더 반갑다.

잊지 못할 초면의 깊은 인상을 안고 다시 찾아온 구면의 만남이란! 아, 이를데없이 감격스러운것이다.

나리다비행장에 내린 비슈와나스는 그 혼잡속에서도 첫눈에 알아보았다. 웃으며 마주오는 총련국제부의 백한기와 최관익…

그들은 얼싸안았다.

얼마만이냐? 엊그제같은데 흘러간 세월은 벌써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나날에 비슈와나스가 벌린 활동은 총련일군들에게도 커다란 고무로 되는것이였다.

공화국에로 안내해준 총련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인디아의 친근한 이 사절을 어찌 반가움으로 맞지 않을수 있으랴. 그것도 그럴것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부부가 함께 찾아오는 이 친근한 벗을!

그날은 총련 제11차 전체대회가 한창 진행되던 1977년 9월 27일이였다.

그날 저녁 한덕수의장과 리계백부의장이 비슈와나스부부를 만났다. 전체대회가 한창 진행되는 바쁜 속에서도 비슈와나스부부를 우선적으로 만나주는 그들이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여기로 오는 귀한 손님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총련의 책임간부들이 고마왔다. 그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지닌 전체 재일조선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한번 폐부로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한덕수의장은 총련전체대회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총련의 주체사상화방침을 관철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재일조선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확실히 총련조직은 생기가 넘쳐나는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공민단체였다.

다음날 비슈와나스는 총련전체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도꾜조선문화회관은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여 있었다. 그날은 대회의 마지막날이였다.

연단에 나선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심정 그대로를 토로하였다.

《…나는 3년전 총련을 방문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떠밀었습니다. 총련을 알게 되고 조선을 알게 된것은 나에게 있어서 인간사회의 참모습, 참세상을 알게 한 극적사변이였습니다. …》

계속하여 비슈와나스는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자기의 소감에 대하여, 세계에 비쳐지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였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일본땅에 살면서도 민족의 넋을 지키며 나라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비슈와나스의 연설은 대회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싼또쉬 꾸마리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비슈와나스에게 속삭이고있었다.

사랑하는 님이여! 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건 자기가 의지하고사는 님이 훌륭한 일을 하고있다는 믿음을 간직할 때랍니다.

그렇다. 녀인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삶의 긍지가 어데 있으랴.

싼또쉬 꾸마리는 남편과 함께 세상을 돌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진가를 알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결혼의 년륜, 부부의 년륜을 새겨가는 그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알지 못했다.

싼또쉬 꾸마리는 날이 갈수록 남편을 리해해야 하고 모든 힘을 다해 남편의 사업을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자각을 더 깊이 하게 되는것이였다.

그전에는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것이 남편을 돕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던 그였다. 그러던 그가 남편을 따라, 남편을 도와 시대의 흐름에 합류한것이다.

녀성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들모두의 공통점은 자기들의 남편이 사회적인물이 되는데서 행복을 느끼고있는것이다. 자기가 아닌 남편이, 바로 다름아닌 자기 자식의 아버지가.

녀성들은 남편이 자기를 아름다움과 선량함으로 이끌수 있는 사람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열정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은 영원히 사랑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나이들며 더욱 깊어지는 사랑과 믿음은 생의 의미를 갑절로 더해주며 인간을 보다 완성시켜주는 삶의 자양분이라고 해야 할런지.

역시 가정의 가장 큰 재부는 순결하고 참된 사랑이였다.

대회에서는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청문과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결의문,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전체대회를 계기로 총련은 더한층 활기를 띠는듯싶었다.

비슈와나스부부는 재일본지식인들, 기업인들과 상봉하였으며 그들의 저녁식사에 초대되였다.

다음날 비슈와나스부부는 조선신보사를 방문하였다.

놀라왔다. 해외공민단체에 이처럼 종합적인 출판기지가 그쯘히 갖추어져있다는것이 놀라왔다.

조선신보사는 조선이 해방된 해인 1945년에 벌써 창립되였다고 한다.

총련이 결성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온 조선신보사는 일간신문인 《조선신보》를 비롯한 총련의 여러가지 출판보도물을 찍어내고있었다. 또한 여기서는 《조선신보》를 일문판 주간지로, 《인민조선》을 영문판 주간지, 에스빠냐어문판 주간지, 프랑스어문판 주간지로 각각 발행하여 세계 150여개 나라 인민들속에 보급하고있었다.

실로 조선신보사는 주체사상과 공화국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세계 수억만 인민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고 조선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을 늘이는데서 큰 역할을 놀고있었다.

또한 조선신보사는 일본 전국각지에 있는 총련의 지부와 분회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배포체계를 꾸려놓고 독자들속에 출판물을 신속정확히 배포하며 그 리용률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었다.

참으로 조선신보사는 해외교포출판보도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조선신보사의 곳곳을 안내한 녀기자가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젊은 나이인데도 그는 일본어뿐아니라 영어와 에스빠냐어도 능숙하게 번지고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미순. 나이는 31살.

처녀였다. 보통키에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진 그는 목에 항상 특수사진기를 걸고있었다. 그는 만나는 첫 순간에 벌써 락천적인 성격이 알리였다.

어느새 찍었는지 그는 몇장의 사진을 비슈와나스부부에게 내밀었다. 비슈와나스가 전체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싼또쉬 꾸마리가 박수치는 모습, 그들부부가 총련의 여러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는 모습…

비슈와나스부부는 생기발랄한 이 녀기자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처녀기자는 눈웃음을 짓고있었다.

조선신보사를 돌아보는 사이 비슈와나스부부는 리미순과 친숙해

졌다. 조선신보사에 아니, 총련에 이처럼 젊고 능란한 녀성활동가가 있다는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비슈와나스는 조선대학교, 조선은행을 비롯한 총련의 여러곳과 조선인기업들을 방문하는 전기간 그와 함께 있었다. 결국 그는 수행기자격이 되였다.

리미순은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총련의 녀성동맹사업과 국제부사업에도 관여한바 있는 견문이 넓은 기자였다. 그의 부모들은 가정에 앞서 총련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재일조선인 1세였다.

비슈와나스는 재일조선인들이 자신들이 택한 길을 변함없이 대를 이어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 힘의 원천에 대하여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들의 마를줄 모르는 그 힘은 자기들에게도 조국이 있으며 민족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산다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서 오는것이였다.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고귀한 삶의 진가를 알고있는 사람들이였기에 그들은 집단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을 항상 간직하고있었으며 개인사정이나 사업에서의 어려움도 참고견디며 한길을 걸어가고있는것이였다. 그런 사람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약속되여있는것이다.

실로 그것은 장한 모습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인디아를 멀리 떠나 해외에서 사는 자기의 친척들, 자기 조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들처럼 자기의 모국을 위해 살기를 바라마지않았다.

그래서인지 재일조선인들의 활기에 찬 모습은 자기 조국에 무한히 충직한 애국의 상징으로 비슈와나스의 가슴에 새겨져 한생토록 아름답게 추억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 야스이 가오루와 오가미 겡이찌도 만나 우정을 두터이 하였다.

그의 머리속에 일본하면 총련의 모습이 떠올랐고 또한 일본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매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지명이나 나라의 모습은 구체

적으로 거기에 살고있는 벗들의 표상으로 떠오르는것이다.

먼 곳의 벗을 가지면 세상이 넓게 여겨진다. 벗은 위도이기도 하고 경도이기도 하였다.

비슈와나스의 주위에 세계의 벗들은 이렇게 늘어갔다.

주체! 그것은 단결의 뉴대였다.

그 뉴대로 맺어진 우정은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가장 공고하고 영원한것이였다.

7. 꽃목걸이사건이후

1978년 초엽이였다.

조선에서 부대통령급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는 조선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였고 주체의 조국에서 온다면 그가 누구든지 발벗고 뛰쳐나가 맞이할 차비가 되여있는 비슈와나스였다. 하물며 《부대통령》(부주석)이 오는데야.

그는 슬금슬금 꽃목걸이를 준비하였다.

인디아외교력사에서 자기 나라를 찾아오는 사절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는 법은 없었다. 하지만 그런것은 생각되지도 않았다.

비슈와나스는 잘 준비한 꽃목걸이를 보이지 않게 차에 싣고 비행장으로 나갔다.

비행기가 도착하였고 조선의 사절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마중나온 인디아외무상 나르씸하 라오가 그들앞으로 다가서고있었다.

이때였다. 불쑥 나타난 비슈와나스가 어쩔새없이 나르씸하 라오의 가슴에 꽃목걸이를 갖다대였다. 얼결에 그 꽃목걸이를 손에 받아든 외무상 역시 어쩔새가 없이 조선대표단 단장의 목에 그 꽃목걸이를 걸어줄수밖에 없었다. 이미 조선의 사절들이 그앞에 와섰던것이다.

신문들에 이 사진이 크게 났다. 그것은 물의였고 인기였다. 이

것은 인디아사회계에 희소식으로 되였다. 이 나라의 풍습에 도대체 그런 례가 없었던것이다. 더더욱 정부급행사에는 없었다. 영국녀왕이 와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쑈까호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을 위한 연회가 있을 때였다.

비슈와나스를 알아본 수상 모자르지 데싸이가 《비슈와나스, 당신 왜 그 꽃목걸이 가지고갔는가?》 하고 묻는것이였다.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나라의 외교력사상 없던 일을 저질렀으니 그것은 사실 정치가들과 외교관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상 시끄러운 일들을 산생시킬수 있는 요소로 될수 있기때문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였다. 수상까지 물어보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사실 나는 소박한 생각에서…》

비슈와나스는 말끄리를 흐리였다. 그 모습이 능청스러운 태도로 보이였던지 수상은 어처구니없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나치고말았다.

모자르지 데싸이는 인디라 간디가 수상을 하던 그 전해까지 부수상으로 있던 사람이였다.

그 전해 인디아에서는 《정치적지진》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실시하는 혼란이 있었고 그해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인디라 간디가 패했기때문이였다.

사실 인디아에서는 간디가 수상으로 집권한 10여년기간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고 결국 나라는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갔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임기 마지막기간에 주관주의적요소들이 나타났다. 그것이 본의든 본의아니든 대중은 정확히 가려보는것이였다. 그의 주관주의적표현은 우선 그가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데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람들에게 피임수술을 할것을 강제로 내려먹이는데서도 나타났다.

결과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간디를 견결히 지지해온 사람들중의 한성원으로서 비슈와나스는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어찌할수 없는 일이였다. 현실은 집권자가 주관

주의, 관료주의를 부리면 오래가지 못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인디라 간디는 이해부터 간디국민대회당 위원장으로 되여 그 당을 이끌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모자르지 데싸이와는 그가 부수상으로 있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모자르지 데싸이도 활동적이고 정열적인 비슈와나스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고있었다. 그는 정계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였다.

그런데 나르씸하 라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외무상에게는 이일로 하여 아주 좋지 않게 보이게 되였던것이다.(나르씸하 라오는 모자르지 데싸이 다음 수상이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은근히 부아가 돋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것이 있단 말인가. 내가 바라서 내가 하고싶은것을 했을뿐인데…

내 더 많은 꽃목걸이를 엮을테다.

오늘은 조선의 한사람에 불과했지만 래일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꽃목걸이를 다 걸어줄테다. 아니, 크고큰 꽃목걸이를 엮어 조선의 땅덩어리에 통채로 걸어줄테다. 그렇게 못할것이 무엇이랴. 주체의 고향에, 주체의 조국에…

이것이 꽃목걸이사건이후 비슈와나스의 생각이였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쳄스포드구락부에 나타난 그를 면목있는 외국기자들이 에워쌌다.

쳄스포드구락부는 뉴델리의 가장 중심부, 대통령의 저택과 국회청사가 있는 곳에 자리잡고있는 가장 급수높은 구락부였다. 그 주변에는 외무성, 국방성, 재정성을 비롯한 5개의 기본성이 주런이 있었다.

이 구락부는 1922년에 인디아주재 영국총독이 영국의 고관들을 위해 세운 구락부로서 독립전에는 인디아인들이 들어올수 없던 곳이였다.

5정보의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이 구역에는 정구장, 수영장을 비롯한 운동시설들이 갖추어져있었고 2층으로 된 건물안에는 회의장, 식당을 비롯한 봉사망들이 다 있었다. 신사들은 여기서 회의도 했고 결혼식도 했으며 또한 각국의 이름있는 기자들이 여기 모여 한

잔 마시며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물론 그 리용비는 다른 구락부에 비해 높았다.

비슈와나스는 널리 알려진 이 구락부를 리용하여 국내외의 이름있는 작가, 기자들과 출판보도계의 거물들을 만나군 하였다.

쳄스포드구락부의 단골들은 비슈와나스를 기다렸다는듯이 그의 출현을 환영하였다. 촉각이 빠른 그들은 이미 그의 활동에 대해 냄새를 맡고있었던것이다.

《당신은 부자인데 왜 그처럼 조선을 숭배하는가?》

《당신들이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한번 받아보라. 그러면 누구나다 그이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 조선을 따르지 않고서는 못배기게 될게다.》

《주체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피가 끓고 심장이 뛰게 하는 사상이다. 당신들도 그 사상을 알면 세계가 달라질것이다.》

국제적인 광고기지인 《인터라즈》사장이 주체사상신봉자가 되여 조선의 **김일성**주석을 스승으로 받들어모신다는 소식은 점점 국내외로 퍼져갔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에 걸어줄 큰 꽃목걸이를 엮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꽃목걸이는 이제 뉴델리에서 진행하게 될 첫 주체사상국제토론회의 성과적개최였다.

그는 그 준비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갔다.

전해에 평양토론회에 참가하고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만나뵙고 돌아온 그는 새로운 흥분으로 학회성원들과 함께 이 사업에 여념없는 나날을 보내였다.

우선 그는 국제토론회를 앞두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경험도 얻기 위하여 1978년에 전국적인 주체사상토론회를 뉴델리와 파트나 두 곳에서 보다 크게 조직하려고 결심하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이 계획을 동료들과 합의하였다.

준대륙이라고 불리우는 인디아땅에서의 전국적인 토론회는 사실상 지역적인 국제토론회의 범위보다 결코 작다고 말할수 없는것이

였다. 한나라의 범위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참가하는 민족수나 인원수에 있어서 지역적인 국제토론회보다 더 많을수도 있는것이였다. 사실상 인디아 한나라의 인구수보다 더 작은 인구를 가진 대륙도 있는것이였다.

이러한 인디아에서의 전국적인 토론회의 영향력은 참가한 그 민족이나 종족들의 줄기를 타고 전세계에로 뻗치게 되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땅에 비슈와나스가 주체사상신봉의 화신으로 거목과도 같이 떡 버티고 서있는것이였다.

1978년에 들어서면서 비슈와나스는 조선과 접촉하는 보다 대중적인 모임인 협회같은것을 하나 결성할 생각을 하고있었다. 여기에 각계각층 군중을 광범히 망라시킴으로써 그 조직을 통하여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더 많이 육성하자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학회성원들에게 인원을 선발해올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자신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출해왔다. 그때 그가 선발해온 사람들중의 한사람이 바로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였다.

고빈드는 인디아공산당 청년사업부에서 일하고있었다. 그는 눈에 영채가 도는 젊은이였다.

인디아 럭크노우종합대학 정치학부를 졸업한 그는`당시 새 사회를 갈망하는 지식청년들이 흔히 걷는 그길, 맑스－레닌주의를 탐구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공산당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신문들에 맑스－레닌주의를 옹호하는 글들을 기고하고있었다.

이 세상에는 정신적인 인간이 되고싶은 소원을 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길을 잘 들어야 건전한 정신을 소유할수 있는것이다.

고빈드는 참된 인생의 길을 모색하고있었다. 《투쟁은 곧 행복이다.》는 맑스의 좌우명을 기발처럼 내흔들며 사회적정의를 위한 투쟁에 젊은 걸음을 내짚었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고 생활은 고전가들의 《명제》와 《예언》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정신적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동서방의 정치뉴스를 다루면서 차츰 그 어떤 리론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객관성, 엄정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있었다.

이러한 그를 바로 그 당의 총비서가 비슈와나스에게 소개하였던 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무소속이였지만 인디아국민대회당, 인디아공산당,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과는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이 3개의 당은 인디아에서 제일 큰 당들이였다. 이 당들과의 긴밀한 련계가 있음으로 하여 어느 정당에도 속해있지 않았지만 비슈와나스는 그 사회에서 언론활동도 기업활동도 구애됨이 없이 벌리며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펴나가고있는것이였다.

학회성원들이 선발해온 많은 사람들로 비슈와나스는 인디아조선친선협회를 결성하도록 뒤에서 조직하였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정면에 나서지 않았다. 이미 《주체사상연구학회》의 서기장으로 되여 맹활약을 하고있는 그가 거기에 얼굴을 비친다는것은 그 단체의 대중성을 약화시키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는 요소로 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또한 비슈와나스는 정부가 남조선과의 관계도 그닥 나쁘지 않기때문에 보다 광범한 사람들을 인입하기 위해서는 남조선과 등을 돌려댄 자기가 그 단체의 정면에 나서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라고도 생각하였다.

그의 생각은 옳았다. 그 단체는 말그대로 친선협회인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인디아조선친선협회의 위원장으로서는 이름있는 전외무상 피. 쉬브 샹카르를 내세웠다. 그리고 서기장으로는 자기의 친구 오. 피. 만수리를 추천하게 하였다. 만수리는 자유기자였다. 비슈와나스는 이 협회의 부위원장이라는 명색을 지니였을뿐이였다. 모든것은 그의 계획대로 되였다. 문제는 뒤에서 이들을 잘 조정하며 밀어주는것이였다.

그때 비슈와나스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몸이였다. 그리하여 가족들과 동료들은 그에게 시간을 내여 치료를 받을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 거목은 결코 누울수가 없었다. 크고큰 꽃목걸이를 엮으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라는것이다.

《일단 결심하고나선 길인데 어떻게 잠시라도 지체할수 있겠는가.》

비슈와나스의 투지는 변함이 없었다. 아마도 그것이 없으면 비슈와나스가 아닐것이다. 그는 휴식을 모르고 전국토론회준비를 다그쳐갔다.

바로 이런 때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그날은 1978년 4월 9일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야스이 가오루와 오가미 겡이찌의 미더운 얼굴들을 보는듯 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가을 평양에서 돌아가 국제연구소의 창립을 위하여 맹활약을 하였던것이다.

이미 불치의 병에 걸려있던 야스이 가오루는 올해초부터 자리에 눕게 되였으나 병원에서 전화로 그 준비사업을 끊임없이 다그쳐왔던것이다.

그리고 그자신은 창립대회에서 할 보고문을 준비하였다.

《존경하는 조직위원회 위원들!

친근한 동지들과 벗들!

우리모두가 오래동안 바라고 기다리던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는 드디여 오늘 그 막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보고문에는 주체사상이 창시되게 된 경위와 그 사상리론적내용 및 생활력이 개괄되여있었고 새로 창립되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사명과 목적, 그 의의가 서술되여있었다.

야스이 가오루의 이렇듯 헌신적인 투쟁과 조직위원회 사무국성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일본국내외의 수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지지와 성원속에 국제연구소는 마침내 자기의 탄생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였던것이다.

창립대회에서는 야스이 가오루를 대신하여 일본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련락협의회 리사 구리끼 야스노부가 《주체사상을 따라배우자》라는 기조보고를 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성스러운 기치》라는 창립선언이 발표되였고 규칙이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야스이 가오루가 국제연구소 리사장으로 선출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과 이 대회에서 한 진보적인사들의 심

장의 웨침은 비슈와나스와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는 중대소식이였다. 이제는 모든 대륙들에서 국제연구소를 거점으로 련계를 취하며 주체사상연구보급을 더욱 심화시켜나갈수 있게 된것이였다.

모든 조직들은 자기의 정연한 체계를 가질 때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수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생각하였다.

로조단체 하나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련결시키기 위하여 나라별, 지역별로조기구들이 있고 그우에 국제기구가 있지 않는가.

세계를 둘러보면 별의별 국제기구들이 무수하다. 국제련합기구(유엔), 국제적십자, 국제법협회, 세계평화리사회, 세계보호련맹, 세계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 등…

세상에 《국제》와 《세계》라는 단어가 붙은 기구들은 이루 다 꼽을수 없을 정도이다. 그중에는 정부적기구도 있고 비정부적기구도 있다. 또한 상설적기구도 있고 비상설적기구도 있다. 그 기구들중에는 허울좋은 명색뿐 실지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기구들도 많다.

하지만 주체사상연구조직은 그 결성부터 다르지 않는가.

시대적인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단결되여 결성되는 조직!

그런 조직, 그런 기구는 틀림없이 가장 잘 조직된 째인 집단으로 될것이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게 될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국제기구로 되여야 한다고, 아니 될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보라, 현재도 세계에는 100여개 나라들에 주체사상연구조직이 결성되여있으며 그 신봉자들은 날을 따라 점점 모든 나라들에 확산되여가고있지 않는가.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은 진리를 사랑하는 일부 선각자들속에서 진행되던 1960년대로부터 세계의 일부 지역과 나라들에서 대중적으로 벌어지던 1970년대초를 거쳐 1970년대말에는 세계의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수많은 나라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사업은 국제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된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세계의 이 많은 조직들과 신봉자들을 하나의 정연

한 체계에 묶어세우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현실의 성숙된 요구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축으로 하여 각 대륙을 대표하는 지역연구소들도 내와야 한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사무국성원들을 둔 상설적인 국제기구이다.

비슈와나스는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상설적인 주체사상연구조직을 창립할 궁냥을 속으로 하고있었다.

그는 그날을 향해 더욱 분발하여나섰다.

비슈와나스는 온 가족까지 동원시켜 전국토론회준비를 다그쳐갔다.

그리하여 그해 12월초 뉴델리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제1차 인디아전국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이 토론회는 인디아땅에 주체사상열풍을 안아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후 그는 숨돌릴 사이도 없이 곧 파트나로 갔다. 빨리 가서 우선 조직사업을 선행시켜놓고올 작정이였다.

당시 가정적으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위급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더 빨리 갔다오려고 서둘렀던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낼수도 있었지만 이번 길만은 자기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부지구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였기때문이다. 앞으로의 영구성을 위해서도 시작부터 기틀을 잘 마련해놓는것이 중요하였다.

파트나는 뉴델리에서 1 000여키로메터나 떨어져있는 비하르주의 소재지였다. 거기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나라에 불어오기 시작한 주체사상열풍을 전국의 방방곡곡에로 급속히 확산해가자는것이였다.

파트나에 도착한 그는 주장관을 만났다. 우선 이 도시에서 토론회를 주관할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하나 찾아 내세우자는것이였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인입하여 토론회를 성황리에 진행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또한 토론회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하여 동부지구에 연구소조망을 많이 내오게 하자는것이였다.

일은 혼자서는 못하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을 인입할수록 일

은 더 빨리 잘되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이것을 잘 알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이 지구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킬만한 영향력있는 인물을 고르는데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

주장관은 파트나종합대학 부총장인 티. 비. 무케르지를 소개하였다. 주장관은 무케르지가 학식도 있는 사람이고 연설도 잘한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만하면 나이도 있고 사회적직책도 있으므로 대번에 호감이 갔다. 이리하여 비슈와나스는 비하르주장관의 소개로 무케르지를 만날수 있었다. 만나보니 그는 좋은 사람이였다. 아주 적임자였다.

세계의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는 주체사상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때에 전국적인 조직인 《주체사상연구학회》 서기장이 나타난것으로 하여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듯이 매우 반가와하였다. 《인디안 타임스》 주필이며 《인터라즈》 사장인 그의 이름을 누가 모르랴.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시기적절한 시기에 약속이나 한듯이 비슈와나스가 나타났던것이다.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은 한길에서 만나기마련인가보다.

인류의 리상사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따르는 한길에서 만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듯싶었다.

비슈와나스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왔다.

그들 둘은 하루종일 이야기했고 또 한밤을 지새웠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경력을 소개했고 자기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허심하게 다 터놓았다. 그래야만이 함께 한길을 갈수 있는 동료로서 서로 인생의 리해를 더 깊이 하고 굳게 손을 잡을수 있는것이였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진정을 가지고 대하면 모든것이 다 좋아지는것이다. 그는 매 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되여있는것을 더 중시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밤가는줄 모르고 주체사상을 놓고 자기가 아는껏 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견해를 다 피력하였다.

무케르지는 리해가 갔다. 많은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사상의 가치를 빨리 포착하는것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까다로운 론리로 수많은 철학을 내놓았고 또한 그것들은 모두 인류리상사회의 실현을 표방해나섰지만 그 어느것 하나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것이였다. 무케르지는 자기가 선행고전가들의 철학을 신봉하면서도 불만을 느끼고 날이 갈수록 깊은 모순속에서 헤여날수 없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되는것이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힌 철학, 바로 그것으로 하여 력사발전이 자연사적과정이 아니라 력사의 주체로 된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힘있게 추동되게 한 철학…

이것은 독창적이다. 정녕 주체사상이야말로 현시대 인류가 반드시 신봉해야 할 유일한 철학적세계관이 아닌가!

그에게 있어서 하루밤 주체사상신봉자와 이야기한것은 오랜 세월 책을 읽은것보다 더 큰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것이였다.

무케르지는 비슈와나스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위대한 철학이요! 내 따라가겠소.》

다음날 비슈와나스는 파트나종합대학의 넓은 강당의 연탁에 나섰다. 이것은 무케르지가 솔선 나서서 조직한것이였다. 무케르지는 자기보다 나이는 아래이지만 자기보다 먼저 주체사상에 접하고 주체사상의 조국을 방문한 비슈와나스를 선배로 내세웠다.

비슈와나스는 파트나시의 여러 인사들과 대학교원들, 학생들앞에서 현시기 급속한 속도로 전세계에 파급되여가고있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대하여 개괄강의를 하였으며 또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직접 만나뵈온데 대한 자기의 소감을 아무런 꾸밈도 가식도 없이 이야기하였다.

비슈와나스의 연설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그들이 이제 진행되게 될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게 하는 계기로 되였다.

파트나토론회준비를 위한 비슈와나스의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무케르지와 함께 주장관을 다시 만나 주에서 참가할 사

람들의 선정과 토론자들 그리고 토론제목과 내용, 회의장소, 날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락착하고야 그곳을 떠났다.

뉴델리에 도착하니 아버지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파트나토론회준비를 미루지 않고 일정대로 계속 내밀어갔다.

뉴델리와 다른 주들에서 참가할 사람들의 명단을 종합했고 필요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토론회날자는 점점 박두해왔고 아버지의 병세는 더 위급해가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병원에서 떠나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맏자식으로서의 응당한 도리였다.

말비아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아버지의 병문안을 왔다. 아버지는 얼굴에 산소마스크를 쓰고있었다. 동료들은 자기들이 파트나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치를테니 걱정말고 아버지를 잘 돌보라고 부탁하였다. 비슈와나스도 이 정황에서 떠나기를 꺼려하였다. 그는 줄곧 아버지곁에 붙어있었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혼미한 정신을 애써 가다듬으며 자식의 이 모든 움직임을 말없이 가늠하고있었다. 언제나 자식이 가는 길을 축복해주며 그길에 길함만이 있기를 빌어온 그였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누운 상태에서 어서 떠나라고 손짓하였다.

《아버지, 일없습니다.》

비슈와나스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느라고 조용히 그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 손짓했다.

《아버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무엇을 생각하는듯 바드리 나트 취바는 잠자코있었다. 그러다가 불쑥 산소마스크를 자기 손으로 쭉 벗기며 그는 숨차게 말을 뱉았다.

《맏이야, 너 갔다올 때까지 내… 내가 죽… 죽지 않는다.》

비슈와나스는 당황하여 급기야 산소마스크를 다시 씌워주면서 대답하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안고 비슈와나스는 파트나에서 진행되는 주체사상전국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학회성원들도 뜨거운것을 삼키며 더욱 열정적으로 토론회를 대했다.

토론회는 량일간에 걸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모든것이 비슈와나스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정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해나갔다.

주장관을 비롯한 여러 각료들과 인사들의 축하연설이 있은 다음 말비아가 《주체사상은 새 사회건설의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학설》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였다. 그들중에는 머리에 터번을 쓴 시크교도들도 보이였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슈와나스는 피. 엘. 쏜디가 생각났고 그가 그리웠다. 그가 만약 살아있다면 교도에 관계없이 비슈와나스가 초청하는 이 회의에 기꺼이 참가하였으리라.

피. 엘. 쏜디는 시크교였다.

시크교는 16세기 인디아에서 발생한 종교로서 근 백년이래 동부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영국, 카나다, 미국 등지에 퍼지였다. 지금 인디아에는 시크교도가 250만명정도 있고 세계적으로 볼때에는 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인디아의 서로 다른 교파들도 자주, 평화, 친선의 이 리념아래에는 이처럼 하나같이 다 모여드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인디아의 동부지역에도 주체사상의 기운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파트나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곳에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나오고 비하르주주체사상연구학회가 조직되게 되였다. 무케르지는 그 학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인디아에서 한개 주라면 사실 한개 나라보다도 더 클수 있는 범위였다. 무케르지가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대표단 단장으로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을 때 그는 바로 이 비하르주주체사상연구학회 위원장의 명의로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던것이다.

모든 일은 노력하면 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일을 성과적으로 마친 즐거운 기분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고도로 떠오른 비행기의 시창아래로 은하수마냥 길게 늘어진 간지스강이 흘러가고있었다. 기분이 떴다.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서는 저절로 시줄이 흘러나왔다.

오 간지스강이여, 너도 기뻐하여라!
이 땅에 주체의 태양이 빛을 뿌리니
너의 젖줄기를 물고자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리며
이 땅의 주인으로 너를 지키게 되리라
너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비슈와나스는 저녁늦게 뉴델리에 도착하였다. 그는 피로를 풀새도 없이 곧장 병원으로 차를 달리였다.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한시바삐 보고해야 했다.

파트나토론회기간에 아버지의 병이 중하다고 전화가 왔었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토론회를 치르었다. 갈 길이 정해진 이상 가야 하기때문이였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다. 그 무슨 장벽이 앞을 막아도 갈 길은 지체없이 가야 한다는것이 이미 굳어진 그의 신조였던것이다.

병원에는 가족들이 모두 와있었다. 비슈와나스는 가슴이 덜컹하였다. 급히 아버지곁으로 다가간 그는 무릎을 꿇으며 앉았다. 눈을 뜨고 자는듯 조용히 한자세로 누워있는 아버지는 아직 정신이 있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절절히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드리 나트 취바의 눈은 좀더 크게 떠지는것이였다. 그는 기다리던 아들을 일별한듯싶었다.

《아버지, 파트나주체사상토론회는 아주 잘되였습니다.》

비슈와나스는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자기의 걸음을 보고하였다. 곁에 선 가족들은 모두 눈에 손수건을 가져갔다.

《아버지!》

《…》

정기가 희미해가던 그 눈에 별안간 빛이 감돌더니 아버지는 알릴듯말듯 소리없이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말할 기운이 이미 없어진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의 장한 걸음을 칭찬해주는것이였다. 마지막기력을 모아 혼미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바드리 나트 취바는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아버지의 그 웃음,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모습이였다. 그 모습은 아들에게 남긴 더없이 귀중한 선물이였으며 또한 이 세상에 남긴 당부였고 믿음이였다. 그 웃음은 한뉘 남을 치료해주며 선한 일을 해온 아버지의 영원한 모습이였으며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모든것이였다.

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치르고 돌아온 아들의 장한 모습을 보며 바드리 나트 취바는 편안히 잠든듯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얼마나 웅심깊은 아버지였던가. 엄하면서도 언제 한번 이 아들이 가는 길을 막아나선적이 없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켜보고있었다. 이 아들이 가는 길에 그 무슨 일이 있을가 걸음걸음 지켜보고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는 책들을 모두 짬짬이 보고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리해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모르게 회의장에 들어와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위대한 그 사상에 감동을 표시하군 하였다.

엄격하면서도 다심했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너무도 많았다. 이 끝없는 추억이야말로 아버지가 넘겨준 진짜 유산이였다.

그렇게 아버지는 갔다. 어제날 숱한 사람들의 병을 돌보아주던 취바박사는 그렇게 조용히 웃으며 갔다. 말없는 그 웃음으로 아들의 앞길을 축복해주며…

아버지는 갔지만 비슈와나스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앞에 그리고 시대와 력사앞에 자기가 할 의무를 성실히 지켰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이, 보다 숭고하고 거룩한 그 무엇이 무거웁게 자리를 잡는것이였다.

그날은 1978년 12월 27일이였다. 당시 바드리 나트 취바의 나이는 76살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자기 아버지의 사망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조전을 보내주실줄은 정말 몰랐다.

조선대사관을 통해 그 조전을 받아든 비슈와나스의 가족은 한번 맺은 인연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전우로 대해주시며 언제나 굽어살펴주고계시는 그이의 하늘같은 그 의리, 그 인품에 감동되여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비슈와나스의 가족만이 아닌 인디아의 모든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국경넘어 발산하는 그이의 위대한 그 동지애에 깊이 감심되여 주체사상을 따르는 길에 더 분발하여나섰다.

아버지가 사망한지 삼일째 되는 날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영국에서 오는 한장의 전보를 받았다.

그는 이미전부터 영국에 드나들면서 영국의 영향력있는 인물들과 영국조선친선협회를 내올데 대하여 합의하고 그 준비사업을 뒤에서 적극 밀어주고있었던것이다. 또한 런던에 적지 않게 자리잡고있는 인디아계영국인들속에도 비슈와나스의 힘은 막강하게 뻗치고있었다.

전보는 바로 그들에게서 온것이였다. 내용인즉 새해를 맞으며 협회를 결성하겠는데 비슈와나스가 빨리 와달라는것이였다. 그 협회결성식장에 모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초상화를 비슈와나스가 모시고가도록 이미 약조가 되여있었던것이다.

당시 조선과 영국간에는 그 어떤 외교관계도 없었으므로 영국인들은 조선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비슈와나스에게 부탁하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 전보를 앞에 놓고 가족들은 비슈와나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관례대로 하면 아버지의 장례행사일정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의 그 누구도 집을 떠날수 없게 되여있었던것이다. 특히 맏자식은 더했다. 가문의 책임을 자식들이 진다는 의미에서 맏자식이 장례행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게 되여있는것이였다.

인디아의 장례행사는 전통적으로 16일로 되여있다. 장례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 3일간은 자식들과 친척들이 모여 장례를 치르는 날이다. 인디아에서는 죽은 사람을 그날에 화장하는것으로 되여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것이다. 때문에 해가 졌을 때 죽은 사람은 다음날 해가 뜰 때 내간다. 이 나라에서 화장풍습은 수천년전부터라고 한다. 오늘까지도 농촌들에 봉건의 짙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이 나라에서 수천년전부터 화장풍습이 있은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그것은 불교의 발생지이기때문인지.

령구는 자식들이 메고나간다.

령구를 화장한 다음에는 모두가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명복을 빈다.

4일째 되는 날은 재가루를 간지스강과 고인의 고향마을에 뿌리는 날이다.

인디아에서 간지스강은 수천년전부터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져왔기때문에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집들에서 이 강에 고인의 재가루를 뿌리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다. 여기에는 부모들의 대를 이어 자식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해나간다는 뜻도 있다고 한다. 물론 바드리 나트 취바도 화장하여 그 재가루를 간지스강에 뿌리고 그 일부를 판도리비비마을의 벌에 뿌리였다.

조객을 받다가 13일째 되는 날에는 큰 홀에 모여 영결행사를 한다. 고인이 어떤 사람이였는가에 따라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은 적을수도 있고 많을수도 있다. 보통 빈민들의 조객은 몇십명에 불과하지만 명망있던 사람들이였거나 부자들이였던 경우에는 조객의 수가 몇천명도 넘는다.

이 행사에서는 고인의 측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언하게 되여있다. 그 발언은 대체로 맏자식이 하는것이였다. 그아래자식들은 하얀 천으로 둘둘 감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서있는다. 이날에 중들을 몇명 불러서 종교행사를 하고 식사를 시킨다.

이날이 지난 뒤에도 16일까지는 행사가 끝나지 않은것으로 되여있다. 고인의 모든것들을 처리하여야 하는것이다.

고인의 옷들은 다 고아원에 보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인의 옷이 아니라 집에 있는 옷들을 자선식으로 나누어주기도 한다.

비슈와나스의 어깨에는 아직 이러한 장례행사를 주관하여야 할

의무가 지워져있는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는 그 어떤 풍습의 바줄에 한번 내디딘 자기의 발걸음을 비끄러맬수 없다는 생각이 더 앞서고있었다.

지체없이 가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는것이였다. 결심은 섰으나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전통적인 민족의 풍습을 어긴다는것은 선친앞에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것이라는 죄의식이 은연중에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미 결혼식때 전통적인 풍습을 한번 어긴바 있는 비슈와나스였지만 장례행사는 조상을 모시는 문제이므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것이였다. 결혼식때에는 아주 잘되였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지금은 마음대로 선뜻 행동을 할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을 우러렀다.

《아버지!》 하고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지만 더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예나 다름없이 인자하게 자식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모습은 비슈와나스를 파트나로 떠밀던 정겨운 그 모습이였다. 바드리 나트 취바는 맏아들의 심정을 어느새 다 알고 이렇게 말하는듯싶었다.

《맏이야, 어서 떠나거라. 갈 길을 지체해서는 안되느니라.》

하지만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때처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떠날수 있으련만 왜서인지 더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누구에겐들 자식된 도리를 다해 마지막까지 선친을 바래워드리고싶은 심정이 왜 없으랴.

이때 그를 떠민것은 두르가데비였다.

《갈 길을 지체하면 큰일을 못하느니라. 어서 떠나거라.》

《어머니!》

이 순간 비슈와나스는 어머니의 그 주름잡힌 얼굴에서 오늘까지 받으며 살면서도 다 느끼지 못하였던 끝모를 사랑의 젖줄기를 다 받아안는듯싶었다.

어쩌면 그 나이에 자식의 속마음속을 그리도 잘 알아주실가?!
어쩌면 그 나이에 시대의 사상을 따라가는 이 아들의 길을 말없이 지지해주고계실가?!
힌두어와 영어로 된 **김일성**주석의 로작들을 짬짬이 읽어온 어머니였다.
비슈와나스는 눈물이 났다. 고마왔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이 순간에 철이 다 드는것 같았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고있었단 말인가!
오해에 앞서 리해하라는 좌우명을 안고살아온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고급한 지성인이였으며 재산도 가지고있은 상류층이였다. 하지만 언제한번 티를 낸적이 있었던가. 손수 자식을 키우느라 자손을 키우느라 허리펼새없이 한뉘를 보내신 어머니였다. 잘 모시고싶었다. 이제라도 잘 모시고싶었다.
두르가데비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거듭 말하였다.
《떠나도록 해라.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게다.》
그러자 모든 가족들이 두르가데비를 지지해나섰다. 동생들도, 처와 자식들도 여기 일은 걱정말고 어서 떠나라고 비슈와나스를 떠밀었다. 온 가족의 마음이 그가 가는 길에 따라섰던것이다.
어머니의 그 마음, 온 가족의 그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비슈와나스는 일신상의 그 어떤 고통도 불행도 다 이겨내며 주체의 한길로 줄달음쳐갔다.
그는 그날로 비행기를 탔다.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주체의 길이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그의 생활의 전부였고 생명이였다.
그는 걸음걸음 위대한 스승의 혁명생애에 비추어 자신을 생각했다.
김일성주석!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집을 떠나 나라를 찾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이는 그길에 가정도 청춘도 다 바친 불굴의 투사, 절세의 애국자이시였다.
그이이시야말로 부모의 뜻을 이룩하신 효자중의 효자이시였으며

인민의 숙원을 풀어주신 성인중의 성인이시였다.

비슈와나스는 그이께서 걸어가신 큰 자욱우에 자기의 작은 발자국을 놓으며 끝까지 따라가고싶었다.

그이의 혁명생애를 천만분의 일이라도 따르고싶은것이 그의 마음이였다.

그는 기아와 빈궁이 범람하는 인디아의 진정한 평등과 인간해방,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성스러운 길에 가정도 자신도 모든것을 다 바치고싶었다.

영국의 동료들은 비슈와나스의 도착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아무 일도 없은듯 흔연히 웃으며 그들의 마중을 받았다.

이리하여 1979년 1월 1일 런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영국조선친선협회를 결성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모임에는 무려 300여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그들모두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였다.

결성모임에서는 **김일성**동지께 올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해 9월 비슈와나스를 만나신 석상에서 자신께서 그 편지를 받아보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영국에서의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친 비슈와나스는 그 걸음을 서부도이췰란드(당시)로 이어갔다. 그는 곧장 집으로 갈수가 없었던것이다. 할수 있는껏 더 많은 일을 하고 돌아가는것이 자기의 길을 떠밀어준 어머니에게 그리고 가정의 모든 혈육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서부도이췰란드의 프랑크푸르트에는 비슈와나스와 거래가 있는 실업가가 있었는데 비슈와나스는 그를 통해 그곳의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 주체사상에 대한 좋은 영향을 주고있었던것이다. 그 실업가의 이름은 니먼이였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비슈와나스는 니먼을 회장으로 하는 주체사상연구학회를 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렇듯 비슈와나스는 그해의 신년을 런던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내며 줄기찬 활동을 벌려나갔다.

일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온 가족이 모인 앞에서 한가정의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주체사상신봉자로서 하고온 일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인디아땅에 주체사상을 선전하는데서 자기의 가정이 앞장설데 대하여 당부하였다.

모든것을 다 바쳐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준비해가고있던 이때 비슈와나스에게는 또다시 크나큰 신임과 영광이 안겨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비슈와나스의 활동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그를 고무격려해주신 한없이 고마운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였던것이다. 그이의 말씀에는 먼곳에서 싸우는 전사일수록 더욱 아끼시며 믿어주시는 고매한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고있었다. 그 사랑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에게서만 흘러나올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인간사랑의 바다였다. 그 품에 안긴 전사는 행복하였다.

행복은 언제나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일할 때 저도모르게 찾아오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위대한 스승께서 계시는 주체의 조국, 조선의 하늘을 멀리에서 우러러보며 심장으로 웨쳤다.

내 마음속의 하늘이시여! 당신에게서 뿜어지는 주체의 광휘로운 그 빛발을 온 누리에 펼쳐가는 길에 내 한생을 바쳐가겠나이다.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이 길을 가겠나이다.

이렇듯 비슈와나스는 꽃목걸이사건이후 주체의 조국에 드리는 더 큰 꽃목걸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체의 한길을 걷고 또 걸어갔다.

8. 인간향기

인간은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인지 인류는 지향적인 리념은 품에 안고 비관적인 관념은 멀리 밀어던지며 력사의 대로를 걸어가고있다.

인류는 주체사상처럼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정확히 밝히고 사

람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회를 고찰한 철학적세계관을 일찌기 자기 품에 안아본적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인류철학사는 수수천년 인간이 인간을 알기 위한 물음을 안고 모대겨온 력사이기도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지금 며칠째 새로운 서사시의 구상으로 잠못들고있었다. 드디여 그의 머리속에 번뜩 상이 잡혔다.

그렇다, 제1장에서는 인간이여, 너는 누구냐? 이런 물음을 안고 모대겨온 인류력사에 대해 서정을 펼치자.

생각이 이렇게 미치자 그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중얼중얼 시구절이 흘러나왔다.

—인간이여, 너는 누구냐?

이 물음을 안고 모대기며
인류력사는 흘러 수수천년

철학의 시조라 일컫는
텔레스로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철학가, 사상가들이
이 물음의 대답에 한생을 바쳤던가

물어보자, 인류사여
그 하나의 진리를 찾아
고뇌의 길을 걸은 이들
과연 몇몇인지

오늘도 남기고있다
력사를 자랑하는 고대의 옛성지들은
철학의 풍요한 대지로 빛나던
그 시대의 기념비들을
…

허나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진리를 찾지 못한채
물음만을 세월우에 실려보냈거니
철학의 력사는
인간이 인간을 알기 위한 고민의 력사
…

비슈와나스의 머리속에는 철학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인물들이 주마등같이 흘러갔다.

그 얼굴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자신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가득 안고 고민하는 모습이였다.

그처럼 유명한 쏘크라테스도
인간이여 너 자신을 알라고 웨쳤을뿐
이 물음의 해답에는 함구무언했더라
《불사의 령혼》만을 안고 가버렸더라

론쟁에 끝없던 맹자도 순자도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다투었을뿐
이 물음의 해답에는
서로 얼굴만 붉히였더라

오로지 진리만을 갈구했기에
자기의 스승 플라톤을 타매한
열정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해답의 고민을 안고 가버렸더라

마주오는 대왕을 향하여
해빛을 가리운다고
그처럼 도고하게 웨친 디오게네스도
이 해답만은 터치지 못한채 사라졌더라

자기자신을 찾았다고
그처럼 열렬히 선언한 고대의 철학자
그가 희열에 넘쳐 본 인간이란
《영원한 불》이라는 알수 없는 존재였더라

《우상》을 타매하며
인생을 모색하던 근세의 철학자도
종래는 그 《우상》속에서
제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버렸더라

시대의 뒤바뀜속에서
세월의 흐름속에서
제나름으로 떠도는 《주의》, 《주장》들
인간을 그 얼마나 모독했던가
…

몽매한 력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인간은 마치 우롱당하기 위해 태여났던듯싶었다. 언젠가는 신의 노예로, 한때는 고독속에 시달리는 공포의 존재로, 또 그리고 생존에 매달린 본능의 노예로…

비슈와나스는 이 모든것에 대해 썼다. 인간이 인간을 알기 위해 모색해온 철학의 력사를 랭철하게 돌이켜보며 그 모든것을 감성의 분출로 엮어나가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였다.

…
숱한 철학자들이
숱한 사상가들이
제나름 고심하며
력사우에 던진 그 물음

—인간이여, 너는 누구냐?

비슈와나스는 일어섰다. 며칠째 고심해오던 서사시의 제1장의 마지막련을 이렇게 끝맺은 그의 심장은 흥분으로 한껏 높뛰고있었다.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악몽의 밤은 영원히 물러가고 세상에 광명의 새날이 밝아오고있는것이였다. 그렇다. 악몽의 밤은 인간이 자기자신을 알지 못하고 우롱당하며 흘러간 력사이고 광명의 새날은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력사를 창조해가는 주체의 시대이다. 그 모든것을 써야한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제1장의 제목은 《인간이여, 너는 누구냐?》라로 달고 제2장의 제목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인간이여, 너는 세계의 주인이다!》로 하자.

그는 시상을 무르익히며 거리에 나섰다. 한밤을 꼬박 새웠으나 시상을 안고가는 사람의 걸음은 활기에 넘쳤다.

시는 정신의 불길이다.

비슈와나스는 활활 타오르는 정신의 불길을 안고 시대의 한복판으로 걸어가고있었다. 그의 시상은 이제 생활속에서 무르익어 조만간에 제2장, 제3장으로 줄줄이 이어지리라.

비슈와나스는 천천히 거리를 걸어갔다. 은행나무잎이 새벽바람에 살레살레 춤을 추고있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비슈와나스는 생각하였다.

저 나무는 새벽에 꽃이 핀다. 누가 보는이 없어도 스스로 꽃피여 열매맺는다.

비슈와나스는 시대의 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부단히 열매를 맺어가리라 생각하며 거리를 걸어갔다.

그날은 1979년 4월 14일이였다.

이날은 인디아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개막되는 날이였다. 이 토론회는 비슈와나스의 발기에 의해, 그와 그의 동료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걸어가면서 거리의 장식물들이 제대로 되여있는지 다시한번 자기 눈으로 확인해보자는것이였다.

모든것이 제대로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를 비롯한 많은 구호들과 프랑카드들이 거리거

리에 보기 좋게 나붙어있었으며 투쟁과 전진을 상징하는 붉은 기발들이 높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힘있게 나붓기고있었다.

비슈와나스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생각할수록 주체사상은 그 진수만 봐도 의심할바없이 우리 시대와 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상으로 뚜렷이 안겨오는것이였다.

주체사상에 접한 인류는 설레였다.

조선의 현실에 구현되여 그 생활력이 증명되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이 사상만이 오직 자주의 새 세기를 펼칠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은 심장으로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구대국에 속하는 이 인디아땅에서도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드디여 막을 열게 된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걸어서 딴쎈트 마르크에 있는 골든 쥬빌리회관 앞에 이르렀다.

회관앞에는 이번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상징하는 대형홰불마크가 걸려있고 오색기가 나붓기고있었으며 회관건물은 갖가지 꽃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여있었다.

비슈와나스는 토론회장에 들어섰다. 새벽안개에 하얘진 그의 앞머리는 이슬기를 머금은 강냉이수염을 방불케 하였다. 어느새 나왔는지 고빈드를 비롯한 학회의 젊은 성원들이 먼저 나와 회의장을 지키고있다가 저마다 인사를 하며 비슈와나스를 반겨맞았다.

비슈와나스는 이들이 고마왔다. 한없이 미더웠다.

그사이 고빈드는 적지 않은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친선협회에서 학회에로 넘어왔으며 누구보다도 솔선 앞장에 서서 인디아의 여러곳에 주체사상연구소조를 뭇고 운영하는 사업에 조직자가 되여 발벗고 나서고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그가 엄정중립을 포기하고 돌연히 조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였는가.

그는 친선협회가 조직한 여러 기념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조선에서 구현되고있다는 주체사상이라는 말에 접하게 되였다. 그는 날이 갈수록 인간중심의 새로운 그 철학사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

을수 없었다. 대학시절부터 어느 리념을 따라야 식민지멍에에서 갓 벗어난 인디아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수 있겠는가를 모색하면서 유물론의 법칙도 연구해보고 유신론의 온갖 주의주장들도 다 살펴온 그였다. 그러나 그 모든 리론들에는 새로 독립한 나라를 추켜세울 힘의 원천에 대해서, 현시대 인류의 복리를 위한 실천적인 방도에 대해서 밝혀준것이 없었다.

정치학을 전공한 인디아의 젊은 지성인으로서 그는 민족이 나아갈 출로를 찾아 모대기고있었다.

이러한 그가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힘의 원천을 인간에게서 찾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에 접하게 되였으니 어찌 심장이 뛰지 않을수 있었으랴.

고빈드는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다는 리해할수 없었어도 이 사상이야말로 자신이 일생동안 의거하고 믿어야 할 정신적기둥이 될것이라는 예감이 은연중에 온몸으로 스며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인간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면 인구대국인 자기 조국 인디아가 무엇인들 못해내겠는가.

복잡할것이 없었다. 진리는 명백한것이다.

그렇다, 인디아가 나아갈 길은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고빈드는 주체사상에 대한 도서들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학습과 탐구, 토론과 론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점차 체득하게 되고 그에 공감하면서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돋보이게까지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는 어느날 비슈와나스를 찾아와 자기도 주체사상연구학회에 들어와 시대의 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 나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너무 기뻐 고빈드의 손을 콱 잡으며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값있게 살아봐.》

비슈와나스의 말은 짤막했으나 의미는 깊었다.

정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값있게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렇게 주체사상연구의 길에 들어섰다. 주체사상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감수하였기에 그는 학회사업에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섰으며 핵심인물로 활동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이번 국제토론회준비에서도 한몫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동료들이 늘어갈수록 비슈와나스는 성수가 났고 외로움을 몰랐다. 그것이 다름아닌 주체사상의 생활력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지금도 그들이 먼저 나와 토론회장을 다시한번 살피며 돌아가고있는것이였다.

주석단정면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인디아대통령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요시모도 마사끼(주체사상국제연구소 연구원, 일본 호세이대학 교수)가 토론회앞으로 보내여온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야스이 가오루의 축사를 전달하였다.

비슈와나스의 귀전에는 야스이 가오루의 목소리가 왕왕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만약에 그가 불치의 병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국제연구소가 창립되여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 국제토론회장에 날개돋쳐 달려왔으리라.

하지만 그는 지금 1년나마 침상에 누워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높은 정신력으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에 전심하고있는 야스이 가오루의 모습은 신봉자들의 귀감이였다.

토론회의 개막연설은 인디아공화국 부수상 쟈그지반 람이 하였다.

원래는 인디아수상 모자르지 데싸이가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여있었다. 그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인디아에서 진행하는데 대하여 전적인 동의를 하였고 자기가 이 회의에 참가하겠다는것까지 약속하였었는데 그 전날에 방글라데슈를 방문하러 떠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제기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수상은 외국방문의 길을 떠나면서 부수상에게 이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회앞으로 보내는 자기의 축하문을 전달할것을 위임하였던것이다.

기본보고는 말리공화국 공보 및 체신상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인 야야 바가요꼬가 하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불멸의 기치》라는 제목으로 된 그 보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의 본질과 기본내용, 그의 보편성과 불멸의 생활력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한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 차장인 오가미 겡이찌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의 보고를 한데 이어 많은 토론들이 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무케르지의 토론에서 진실한 심장의 고백을 들었다. 파트나토론회이후 그가 주체사상의 원리를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왔는가 하는것은 그의 토론이 다 말해주고있었다.

오늘은 지식을 얻는 날이라는 소박한 말로 시작을 뗀 그의 토론은 대번에 청중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 말에는 주체사상에 접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현대철학사상을 알게 되였다는 그의 속대사가 담겨져있었다. 그것은 주체사상을 알게 되고 그 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에 대하여 알게 됨으로써 자기의 번민을 씻어버리고 참된 교육자, 참된 학자로서 새 출발을 할수 있게 되였다는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과학적이며 론리정연한 그의 토론은 참가자들을 크게 공감시켰다.

비슈와나스도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청중들의 요란한 박수를 받으면서 무케르지는 자기의 판단과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는것이였다. 그 판단과 행동은 현시대의 기본추세를 이루는 위대한 사상이 주체사상이라고 보고 깊이 연구한것이였다.

이때 비슈와나스의 머리속에는 무심중 생각이 떠오르고있었다. 그 생각은 철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저명한 학자, 교육자를 축으로 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주체사상연구소를 내와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지역에 그만한 인물이 없을듯싶었다.

역시 비슈와나스는 앞날의 설계자였으며 조직자였다.

다음날에도 토론회는 계속되였다. 그날에 이채를 띤것은 인디아 학생소년들의 축하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민족옷차림과 학생복차림을 한 200여명의 학생소년축하단이 민족악기로 환영곡을 울리며 토론회장에 들어섰을 때 장내는 미래의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요란

한 박수를 보내였다.

학생소년축하단은 북과 나팔, 피리로 환영곡과 민족음악을 연주하였으며 5명의 학생소년이 연단에 올라 축하문을 랑독하였다. 이 학생소년축하단을 준비시키느라고 고빈드가 많은 걸음을 하였다.

이날저녁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연회가 토론회준비위원회와 뉴델리시민리사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인디아조선친선협회의 공동명의로 아쑈까호텔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인디아대법원 원장과 전외무상이였던 챠반이 참가함으로써 토론회의 지위가 더 높아졌다.

토론회 3일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편지와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인디아대통령 넬람 산지바 레디가 이날 자기의 저택에서 차를 마시는 모임에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단들을 초청한것으로 하여 토론회의 의의는 자못 크게 부각되였다.

인디아에서의 주체사상에 관한 첫 국제토론회는 세계적판도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리해와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매개 나라 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 의의깊은 국제적회합이였다.

뉴델리의 마우리아쉐라톤호텔의 유래가 이 토론회에 기원을 두고있다는것만을 보아도 당시 그 토론회가 얼마나 인기가 큰 국제적회합이였는가를 알수 있다.

그때 그 호텔은 그저 마우리아호텔이라고 불렀다.

그 어떤 일류급호텔이 개업을 시작하였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쉐라톤이라는 이름은 3년이상 운영하면서 호평을 받을 때에 붙이는것으로 되여있다. 바로 3년이 되는 그 해에 마우리아호텔이 5대륙의 각국에서 온 수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받은것으로 하여 일약 인기를 획득하였으며 쉐라톤호텔로 간판을 걸수 있었던것이다.

일류급호텔의 징표의 하나는 봉사원이 일체 눈에 보이지 않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손님이 찾기 전에는 앞에 나타나지 않는것이다. 그 마우리아호텔이 그 정도로 갖추어져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나 어쨌든 각국의 그 손님들로 하여 쉐라톤의 간판을 가진것만은 사

실이였다. 그만큼 1979년의 인디아주체사상국제토론회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큰 대회였다.

연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5대륙이 다 참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로서는 뉴델리토론회가 3번째라고 할수 있었다. 물론 1971년에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처음으로 있은 후 여러곳에서 국제토론회들이 진행되여왔지만 그 모든 토론회는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토론회들이였다.

5대륙이 다 참가한 전세계적인 성격을 띠는 첫 주체사상국제토론회는 1976년의 안따나나리부(마다가스까르)토론회이고 그 다음은 1977년의 평양토론회이며 세번째가 1979년의 뉴델리(인디아)토론회인것이다.

또한 이 뉴델리토론회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조직되여 처음으로 되는 국제토론회인것으로 하여 자못 의의가 큰 토론회였다.

대도시의 여러 신문들은 꼬리를 물고 이번 토론회소식을 싣고있었다. 인디아의 모든 통신, 보도들도 일제히 토론회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토론회는 끝났지만 거리거리의 장식물들과 기발들은 그대로 있으며 토론회의 의의를 계속 강조해주고있는듯싶었다.

인디아에서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참가한 국제회의는 일찌기 없었다. 혹 있었다면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은 없었다.

많은 벗들이 비슈와나스를 찾아와 수고하였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비슈와나스는 세계의 많은 주체의 벗들과 더욱 친숙하게 되였고 활동의 폭도 더욱 넓어졌다.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오가미 겡이찌였다.

거듭거듭 축하의 인사를 하는 오가미에게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인사는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난해 창립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사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당신을 축하합니다.

나는 국제연구소가 하나의 사상에 의해 굳게 단결되여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국제기구로 될것을 념원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지역과 나라들마다에 주체사상연구

조직들을 확대해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 바쳐 나갑시다.》

비슈와나스가 그처럼 기대하고있는 오가미 겡이찌는 어떤 인물인가.

당시 그의 나이는 32살이였다.

국제연구소 초창기부터 사무국사업을 보고있는 그는 일찌기 20대의 초엽에 《**김일성**전》을 읽고 위인을 알아보았고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깨닫고 그 연구보급을 위한 길에 뛰여든 시대의 선각자였다.

1973년 조선을 처음 방문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은 그는 귀국하는 즉시 군마대학을 중퇴하고 직업적인 주체사상신봉자가 되였던것이다.

당시 의학부 졸업반이였던 그가 살아가기 좋은 의사직업을 버리고 자기 조국의 적대국에서 나온 사상을 신봉하는 곡절많은 투쟁의 길에 나선다는것은 누구나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였다.

참으로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시대의 사상을 알아보고 그 사상으로 예측한 자기 조국의 앞날을 내다본 일본인민의 총명한 아들이였으며 세계의 평화를 지향한 국제주의자였다.

그는 벌써 1975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첫 접견을 받고 그이의 품에서 주체의 새 생명을 받아안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1세에 당당히 속하는 인물이였다.

그는 1976년의 안따나나리부국제토론회 참가자였다.

20대부터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 련락협의회 책임자로서 맹활약을 해왔으며 30대초엽부터 국제연구소 사무국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는 그의 이름은 신봉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보다 나이가 퍽 아래인 그를 적극 내세웠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야 자주의 래일이 더 밝게 빛나는것이 아니겠는가.

오가미 겡이찌는 그대로 비슈와나스에게 호감이 갔다.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적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비슈와나스와 같은 거물이 주체의 한길에 함께 서있다는것은 모두에게 커다란 힘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그에게는 젊은이들도 따를수 없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신념, 배짱이 있었다.

그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연구보급을 위한 길에서 큰 열매들을 따내고있는 비슈와나스의 강의한 노력에는 모두가 감동되였다.

아브둘 말라크도 비슈와나스에게 축하의 인사를 했다.

그는 1977년 평양토론회에 참가한 이후 또다시 자진하여 조선을 방문하였으며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글들을 많이 써내고있었다.

언제나 말없이 꾸준히 주체사상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국내외에 선전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그의 진실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동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있었다.

호쎄 프란시쓰꼬 아길라르 불가렐리도 뉴델리에서의 첫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결정적역할을 한 비슈와나스를 진정으로 축하해주는것이였다.

그는 멀리 대륙을 횡단하여온 아메리카대륙의 견결한 주체사상신봉자였다.

그로 말하면 한때 꼬스따리까의 사회당총비서로서 대통령립후보로 출마한바도 있는 사람이였다.

그때 꼬스따리까기자동맹 위원장직도 겸하고있던 그는 1969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그는 주체의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새 출발을 하였다.

그는 우선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우자면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당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당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오래동안 자주성이 없이 큰 나라만 쳐다보았던 당이다보니 일조일석에 방향전환을 할수 없었다. 게다가 사회당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당으로 만들려는것을 눈치챈 미제와 국내반동들은 당안에 암해분자들을 들이밀어 온갖 리간파괴책동을 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헌옷을 뜯어 뒤집기보다 새 천으로 새옷을 만드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써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은 새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사회당위원장직을 서슴없이 사임하고말았다.

대통령후보로까지 출마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가꾸어온 당의 지반을 버린다는것은 사실 가슴아픈 일이였으나 그는 그 모든것을 놓고 주체의 새길을 걸어갔다.

아길라르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새 당을 창건하는 사업과 지역적인 주체사상연구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그는 그 전해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지역연구소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를 창립하고 그 집행리사장으로 선거되여 맹활약을 하고있었다. 그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에 참가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열심히 배우고있으며 주체사상에서 자기들의 투쟁의 앞길을 찾고있다.》고 격조높이 웨쳤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도 훌륭한 연설을 하였다.

《아길라르선생,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시아지역 연구소를 꼭 창립하겠습니다. 주체의 한길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갑시다.》

비슈와나스는 그의 축하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고마왔다. 주체의 벗들이 고마왔다. 서로서로 믿어주고 떠밀어주며 함께 한길을 가는 세계의 벗들이 있음으로 하여 생활은 몇갑절 의의있게 흘러가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세계적인 국제토론회를 자기 조국땅에서 성과적으로 치르었다는 그 환희의 감정에서 나오는것만이 아니였다. 그 눈물은 자기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성인중의 성인으로 모신 주체의 태양 **김일성**주석의 제자로서 스승께 올릴 보고를 마련한 기쁨의 샘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성과적으로 진행한 인디아국제토론회에 대하여 삼가 보고를 드리였다.

이렇게 주체의 조국에 드리는 그의 마음속의 꽃목걸이는 해마다 엮어졌다.

그 꽃목걸이를 마음속에 안고 그해 8월말 그는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비슈와나스의 몸은 좀 편치않은 상태였다. 육체에는 아랑곳없이 돌진하는 그 성미를 맞추느라 온몸이 지쳤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선에는 꼭 가야 했다. 그의 결심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것이였다.

이리하여 그는 싼또쉬 꾸마리의 보호를 받으며 비행기에 올랐던것이다. 그의 사색은 한시도 중단을 몰랐으며 걸음은 앞으로만 나갔다.

오는 도중 그는 벌가리아에서 종시 육체를 견지하지 못하고 앓아눕게 되였다.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졌던것이다.

벌가리아의 친구들은 조선방문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쏘피아에서 평양보다는 뉴델리가 훨씬 가까왔던것이다.

싼또쉬 꾸마리도 망설이게 되였다. 남편의 몸상태로 보아 평양까지 가는 길을 담보하기 힘들었던것이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돌아설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주체의 조국으로, 주체의 태양의 품으로 기어이 가야 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길임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그것은 그의 확고한 의지였다. 싼또쉬 꾸마리를 바라보는 비슈와나스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가자, 안해여, 평양으로!

그대는 누구보다 잘 알고있지 않는가. 한번 떠난 길을 중도에서 멈춰서도, 돌아서도 안된다는것을!

자 어서, 지체말고 가던길 앞으로!

싼또쉬 꾸마리는 불타는 그 눈빛에서 남편을 돌려세울수 없음을 알았다. 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눈빛, 몸짓에서 누구보다 그의 속마음을 잘 알고있는것이였다.

남편의 확고한 그 신념, 강의한 그 의지가 싼또쉬 꾸마리의 가슴속에도 소리없이 흘러들었다.

그는 쏘피아주재 조선대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와주세요. 우린 꼭 평양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여 비슈와나스의 긴급치료대책이 취해지면서 그들부부는 모스크바를 거쳐 평양으로 가는 항로에 오르게 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그들부부는 쏘련주재 조선대사의 마중을 받으며 조선대사관으로 들어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에서는 의사와 간호원을 태운 비행기가 날고있었다.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랑의 비행기를 띄워주시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조선대사관 숙소에서 유능한 조선의사들의 구급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열흘간.

드디여 비슈와나스의 병은 호전되여갔다.

이때의 그들부부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김일성**주석께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위해 사랑의 비행기를 띄워주시고 죽었던 생명을 구원해주시였으니 그분이시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성인중의 성인이신가 하는것을 그때에 나는 심장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오늘날 비슈와나스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그때 쏘련주재 조선대사관에서 치료를 받는 사이 9.9절은 지나가고말았다. 하지만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습이 더 뚜렷하고 더 숭엄하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조선의 위대한 현실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낳은 결실이였다.

비슈와나스부부는 조선의사들과 함께 평양으로 왔다.

9월의 명절은 지나갔지만 평양의 거리는 여전히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여있었으며 사람들은 활기에 넘쳐있었다.

9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비슈와나스부부를 또다시 만나주시였다.

몸소 넓은 홀에 나오시여 이들을 뜨겁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당신들이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찾아준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순간 비슈와나스부부의 가슴속에는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이루 형언할수 없는 감격과 흥분의 파도가 와—와— 흘러드는것이였다.

《감사합니다. 주석각하는 전세계인민들의 밝은 태양이십니다. 저희들은 주석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비슈와나스부부는 솟구치는 심정 그대로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이들의 인사를 받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또다시 안겨주시였다.

담화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에게 친히 자리를 권하시였다.

비슈와나스는 황송함을 금치 못해하면서 일어선채 말씀올렸다.

《존경하는 주석각하! 저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을 귀국에 와서 형제인 조선동지들과 함께 쇨것을 열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약속한 날자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건강은 주석각하께서 돌려주신 커다란 은정속에서 회복되였습니다. 주석각하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슈와나스에게 거듭 앉으라고 하시였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는것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데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는것은 의무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에 오는 길에 병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혈압이 내려가고 건강이 회복되고있는 당신을 만나게 되여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은 계절에 우리 나라에 온것만큼 푹 쉬면서 충분히 치료도 받고갈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지금 주석각하의 뜨거운 배려와 사랑속에서 잘 지내고있습니다. 귀국의 의사들도 저를 잘 치료하여주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때입니다. 병을 치료하기에는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병치료를 잘하십시오.

나는 형제로서, 동지로서 당신에게 이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결코 외교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이의 그 음성에는 그 어떤 가식도 꾸밈도 없었으며 오직 진실함과 뜨거움만이 한껏 어려있었다.

《나는 당신을 여러번 만났고 담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우리의 전우로 여기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치료를 잘 받고가십시오.》

《주석각하, 감사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열정적이며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뉴델리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였다.

《나는 인디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가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일군들이 찍어온 기록영화를 보고 토론회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인디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는 인디아정부의 고위인물들도 참가하였습니다.

결과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당신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비슈와나스의 감동은 끝이 없었다. 위대한 스승의 그 믿음이면 이 세상에 더 바랄것이 없었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전사의 소행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평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그는 삼가

말씀을 올리였다.

《감사합니다.

물론 주석각하께서 인디아에서 열렸던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친히 참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석각하를 한자리에 모신 심정으로 그 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석각하는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때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번에 매우 큰 사업을 하였습니다. …

지금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나라나 자본주의나라들도 다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

《옳은 말씀이십니다.》

《나는 자주성을 주장하는 투사인 당신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석각하, 감사합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를 자주성을 주장하는 투사로 불러주시는 그 믿음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인디아에 있는 당신의 가정에 근심되는 일이 없으면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휴식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한동안 누잦힌 비슈와나스는 마음을 다잡으며 진정을 토로하였다.

《주석각하,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주석각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품고있습니다. …

저는 이번에 귀국에 와서 주석각하를 다문 몇분만이라도 만나뵙고 주석각하께서 주시는 국제문제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국제적인 정객은 아닙니다. …

저희들은 국제적인 지지성원밑에 조만간에 조선의 통일이 이룩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김일성**동지의 모습은 자신만만한 장군의 모습이시였다. 그 모습을 다시 우러러보는 순간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는 그처럼 위풍당당한 세계적인 수령의 바쁘신 시간을 자기가 너무도 지체시킨다는 송구함이 깃드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초조해지는 마음을 바재이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였다.

《주석각하의 귀중한 시간을 제가 벌써 많이 허비하였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주석각하께서 허락하신다면 5분동안만 더 말씀올리려고 합니다.》

초조한 그의 마음은 긴장한 그의 얼굴빛에 여실히 나타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이러한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웃으시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 당신을 위하여 시간을 많이 내자고 합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듯 비슈와나스는 안도의 숨을 소리없이 내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는 학생이 선생님앞에서 총화하는 심정으로 위대한 스승에게 그 기간에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 보고하였다. 인디아고위인사들과 한 사업에 대하여, 영국에 가서 영국조선친선협회를 조직한데 대하여, 서부도이췰란드의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주체사상연구학회를 조직한데 대하여, 네팔에 가서 국왕을 만나 그 나라에서 주체사상토론회를 진행할데 대한 합의를 본데 대하여, 필리핀대통령부부의 초청을 받고 마닐라에 가서 15일간 머물러있으면서 그 나라 정부인사들과 사업한데 대하여, 쏘련사람들에게도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또한 그는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있는 일들과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 계획한것을 일일이 보고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를 내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데 대해서와 지역연구소창립은 아시아지역토론회를 크게 열고 거기에서 선포하겠다는것, 지역토론회소집의 발기자와 지역연구소 성원들은 누구누구로 하겠다는것 등…

그는 위대한 스승앞에서 자기의 결의를 다지였다.

《저는 지금까지 주석각하의 사상을 전세계에 선전하는 사업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치고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되는 사업이며 저의 일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생애의 나머지기간을 변함없이 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전세계에서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바치겠다는것을 말씀올립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이 결의에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저는 앞으로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방문하여 이 지역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만나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념원입니다.

뮤레찐이나 책같은것을 발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것은 직접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접촉하면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여 그는 주체사상선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최근 국제정치정세에서 알고싶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질문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즉석에서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주체사상을 배우는 목적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식대로 처리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자는데 있다는 인식을 바로가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매개 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꺾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자주성을 견지하여 거기에서 출로를 찾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방화되여가고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보고계시였으며 그 나라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그때에 벌써 가늠하고계시였다.

천리혜안의 통찰력으로 온 세계를 굽어보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스승의 명백한 말씀에서 비슈와나스는 자기가 나아가야 할 앞길을 새롭게 받아안은듯싶었다.

동유럽의 많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거래하고있는 그는 이 나라들에서의 변화를 감촉하고있었던것이다.

《저도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그릇된 길로, 파멸의 길로 줄달음쳐나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인디아에서 사회주의나라사람들을 자주 만나고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조선의 사회주의에 대하여서와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뵙던 일들을 말하여주군 합니다. …

저는 주석각하께서 매우 바쁘시다는것을 잊어버렸던것 같습니다.

주석각하의 귀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웃으시며 여유작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내였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나 함께 합시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눕시다.》

너무도 황송함을 금할길이 없어 거듭 주석각하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데 대하여 량해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올리는 비슈와나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며 이들부부를 오찬회장으로 이끄시였다.

《연설은 하지 맙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듭시다.

오늘은 당신의 생일입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여 상에 똘뜨도 만들어놓았습니다.》

순간 비슈와나스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놀랐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이날에 찾아주신것은 자기의 생일이였기때문인것이였다. 비슈와나스당자도 조선방문의 분망하고 즐거운 나날속에 자기 생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참으로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였다. 그것은 자기의 생일이여서가 아니라 **김일성**주석께서 자기의 생일을 미리 아시고 그날에 찾아주셨기때문이였다.

참으로 고귀한 은정이였다. 그이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그 깊이를 다 알수 없는것이였고 그이께서 안겨주시는 믿음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들부부의 손에 축배잔을 들려주시며 생일을 축하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석각하! 감사합니다.

저는 **김일성**주석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이 잔을 들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부부와 식사를 함께 해주시며 가정적분위기속에서 마주앉으시였다.

싼또쉬 꾸마리는 더없이 감격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가 채식성이라는것을 아시고 전형적인 남새음식을 마련해주시였기때문이였다.

인디아사람들의 주식은 밥, 쌀가루로 만든 빵과 떡, 밀가루지짐이며 힌두교도들은 주로 남새류를 먹으며 고기는 물론 닭알도 먹지 않는다.

식탁은 이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들로 차려져있었다.

싼또쉬 꾸마리는 그처럼 위대한분이 어쩌면 이렇듯 세심하고 다심하실가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뜻을 같이하는 전우에 대한 스승의 사랑은 육친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의 리념, 하나의 사상으로 흐르는 한없이 크고 고귀한 이 세상의 모든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담화실에서 하시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지금 일부 사회주의나라 사람들은 돈 몇딸라를 얻기 위하여 인민들의 머리가 썩는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

우리 나라에 와있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건전하고 좋은 제도라고 옳게 평가하고있습니다.》

비슈와나스는 모든것이 그대로 리해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있는바를 그대로 말씀드렸다.

《귀국은 사람들이 좋은것만을 배울수 있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평양에 와있는 인디아대사는 일전에 저를 대사관에 초청한바 있습니다.

대사에게는 학교에 갈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그 인디아대사를 다시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지금 아들을 조선학교에 보내고있는데 배우는것이 많다, 우선 신발도 언제나 스스로 깨끗이 닦아신는다,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을줄 알며 례절도 밝아지고 품행도 아주 좋아졌다고 하면서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조선말도 잘하여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조선노래도 잘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께서도 조선에 와있는 인디아대사의 아들이 지난 5.1절에 다른 나라의 많은 손님들앞에서 우리 노래를 잘 불러서 칭찬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비슈와나스는 인디아대사에 대하여 그대로 말씀드렸다.

《귀국에 와있는 인디아대사는 본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본국으로 소환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는데 아들이 조선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것이 많고 건전하게 잘 자라기때문에 오히려 본국으로 소환되여갈가봐 걱정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지금 많은 사회주의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좀 늦었습니다. 그들은 진창속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하겠는데 사람들속에서 돈밖에 모르는 개인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있습니다. …》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현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까지 명철하게 꿰뚫어보시며 현정치정세를 일일이 분석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견을 받아안으면서 비슈와나스는 지금은 새로운 사상에 기초한 새형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때라는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그이의 솔직성과 신념은 최대의 정신적높이에서 흘러나오는 철학성과 인간성을 다 체현한 성인의 솔직성과 신념인것으로 하여

그이앞에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건강하시여 전세계인민들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실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겸허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나는 무엇보다 조선인민을 위하여 많이 일하려고 합니다.》
비슈와나스부부는 자기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위대한 수령님의 풍모를 한가슴에 받아안으며 저절로 고개가 숙어졌다.
또한 그는 야스이 가오루가 앓고있는데 대하여 걱정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번 사귄 벗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위대한 스승의 품에 안긴 전사들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다는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이날 많은것을 질문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알기 쉽게 해명해주시였다.
시간은 무려 3시간 30분을 넘어서고있었다.
《존경하는 주석각하!
오늘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입니다.
주석각하께서 오늘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저와 저의 부인을 접견하여주시고 저의 생일을 축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주석각하께서 언제나 행복하실것과 건강하실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들의 인사에 감사를 표시하시면서 뜨겁게 배웅해주시였다.
이날의 감동에 대하여 비슈와나스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날 우리 부부는 꿈을 꾸는것 같았소. 시종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태양과도 같으신 그이의 인품에서 우리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에게서만 느낄수 있는 인간사랑의 참뜻을 받아안게 되였소. …
진정 **김일성**주석은 성인중의 대성인이시오.》
그날은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단순히 생일만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또한번 부활하는 날이였다.
그날 비슈와나스와 싼또쉬 꾸마리는 숙소에서 잠들지 못하였다.

인류의 대성인께서 함께 보내주신 이 하루는 그들이 인생길에서 영원한 활력을 받아안은 또하나의 분기점으로 되는것이였다.

확실히 그이는 인간을 끌어당기는 무한한 견인력을 지니고계시였다.

그 힘이 무엇일가.

그것은 향기였다. 성인만이 내뿜을수 있는 류다른 향기였다. 꽃의 향기에 반하여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듯이 고상한 인간이 지닌 그 향기에 매혹되여 만민이 그이를 따르고 그이의 두리에 뭉치는것이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그 인간향기는 자주성에 기초한 뜨거운 인간애이며 가장 숭고한 인정미였다.

그 인간애, 그 인정미는 만나뵈옵게 되는 첫순간부터 인간의 온넋을 완전히 매혹시키며 그들을 참인간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여나게 하는 위인의 향기였다.

비슈와나스는 그이를 처음으로 만나뵈온 그날부터 자기도모르게 무조건적으로 그이를 받들어온것은 바로 그 인간향기에 끌리였기때문이였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것이였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저 하늘의 별처럼 살고싶었다. 주체의 태양이 빛나는 인류의 하늘에 영원히 빛을 뿌리는 하나의 별로 살고싶었다. 오래오래 그 태양을 받들며 …

끝없는 창공을 향하여
찬란한 광명을 향하여
자유의 공기를 향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자유의 깃 펼친 새야
날으라 우주의 한끝까지